

미래에셋대우 VIP 고객을 위한 글로벌 자산 관리 매거진

OBLIGE
CLUB

OBLIGE CLUB MAGAZINE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JAN-FEB 2018





오블리제 클럽은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 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한
미래에셋대우의
VIP 자산 관리 브랜드입니다.



일산중앙WM 김경자 고객 作
수채화

Happy day!

응모 사연

화병에 향기 가득한 국화를 꽃아 기분전환 하는 것이 나와 남편의 작은 행복이다.
2018년에도 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일이 더 많이 있기를 기원해본다.

스페셜	201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전망
-----	-----------------------------------

- 06 I.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보는 산업
- 10 II. 아시아의 로봇 산업
- 14 III.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힘들어진 산업



별책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자산 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프리미엄 라이프	
----------	--

- 20 **Season** 새해의 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세계의 음식
- 24 **Heyday** 행복을 위한 새해 계획과 실천 방법
- 26 **Heritage**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 30 **Futurology** 과학적인 환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보여줄 미래
- 34 **Travel** LA의 숨겨진 명소, 샌타바버라 & 말리부 비치
- 38 **Recommend**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감성
- 40 **Review** 가장 저렴한 예술에서 가장 값비싼 예술이 되기까지 <Hi, POP-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展>

글로벌 자산 관리

- 44 **은퇴 설계** 은퇴 리스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48 **글로벌 이슈/테마** 세계 개혁이 유통업의 종말을 막을 수 있을까?
- 52 **글로벌 플랫폼 기업** 아마존, 무한 영토 확장의 비밀은 플랫폼
- 56 **국내 이슈/테마** 5G :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 60 **핫 상품** 성장 기회가 있는 이머징 시장에 주목하자

어드바이저리

- 66 **절세 가이드** 임대주택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
- 68 **부동산 솔루션** 금리 인상기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
- 70 **법률 클리닉**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 72 **WM NEWS**

VIP 고객 참여 공간

- 74 **오블리제 클럽 자유 작품 공모전 당선작 갤러리**
- 84 **오블리제 클럽 2018년 새해맞이 고객 덕담 메시지**
- 88 **오블리제 클럽 자유 작품 공모전 안내**
- 89 **오블리제 클럽 문자 참여 이벤트 안내**

발행처
미래에셋대우

발행처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수하동, 미래에셋센터원빌딩)

발행일
2018년 1월 26일 (Vol. 47)

총괄 진행
미래에셋대우 VIP서비스본부 (02-3774-6066)

디자인·인쇄
한국경제매거진(주)



04

스페셜

201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전망

52

글로벌 플랫폼 기업
아마존, 무한 영토 확장의 비밀은 플랫폼



84

Message

2018년 새해맞이 고객 덕담 메시지

〈오블리제 클럽〉은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miraesassetdaewoo.com > 회사 소개 > 홍보 >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위험(미래에셋대우, 신용등급AA/한국기업평가(주))/2017년 5월 12일 기준)에 따라 상환되며 발행사의 부도 또는 파산 시 원금손실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 발행 외의 채권(또는 CP)에 대해 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중도매매시 시장금리 등에 따라 원금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종매매는 거래전략 등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단기간 내에 상당액을 손실할 수 있고, 잦은 매매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의 과다 발생으로 수익 실현 기회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수수료 : [국내]신규 영업점 개설 계좌 온라인 0.14%/오프라인 0.49%, [해외]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1% 등(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매거진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금융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전망

모든 언론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점에도 관련 책이 넘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겹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부하다고 표현하기에는, 4차 산업혁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기업 현장에서 이보다 중요한 변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각국 기업의 변화와 전략을 가까이서 관찰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주식리서치본부에서는 새해 첫 스페셜 기획으로 글로벌 경제와 주식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진부하지 않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였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같이 익숙한 이야기 혹은 알파벳, 알리바바 등 잘 알려진 기업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작은 기업 혹은 의외의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는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로봇 산업에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한국에서는 관련 기업이 없어서 무시하고 있지만 로봇 산업은 중국의 대규모 수요와 어우러져서 강력한 성장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이 항상 밝은 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짚어봅니다. 일부 기업과 산업에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변화가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I.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보는 산업

II.
아시아의 로봇 산업

III.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힘들어진 산업



글 _ 이필상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아시아·태평양 리서치본부장 및
리서치펀드 매니저
ecotorian@miraeasset.com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보는 산업

혁신의 확산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혁신의 초창기에는 혁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 아마존이나 알라바바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며 삼성전자는 디램 D Ram 팹 Fab, 반도체 제조 설비를 더 많이 지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혁신의 두 번째 단계에는 혁신을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잘 접목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 투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뜻밖의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을 찾는 것이다.



GE와 롤스로이드는 세계에서 운항중인 항공기의 엔진 작동 정보를 수집한 빅데이터를 제품 품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누구나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안다. 하지만 빅데이터가 독점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빅데이터가 중요해질수록 기업들은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의 '영원한' 경쟁력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할 때, '고급 데이터를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는가'가 핵심 질문이 되었다. 데이터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의외로 전통 있는 산업계 기업들이 두드러진다.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 GE나 롤스로이드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운항중인 항공기로부터 실시간으로 엔진 작동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엔진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에는 메울 수 없는 경쟁력 차이가 있다. 일본의 로봇 기업 파나직^{파나직}도 마찬가지다. 이 회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로봇 작업 현장으로부터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로봇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 반면 이와 같은 대규모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신흥 로봇 기업들은 좋은 성능의 로봇을 만들어내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류 하청 산업

한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업계의 논리를 바꿔놓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의 논리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놓고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의류 하청 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의류 하청기업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다는 것일까? 중국의 리딩 의류 하청업체인 선저우 인터내셔널^{Shenzhen International}을 들여다보자. 이 기업은 유니클로, 나이키 등 전 세계 주요 의류 브랜드로부터 의류 및 스포츠웨어를 하청받아 생산하는 기업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회사가 고객사들의 매출 부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지난 20년간 평균 15% 이상 성장했으며 최근 5년간에도 15%씩 성장세를 유지했다. 의류 하청업이라는 오래되고 정체된 산업에서 이렇게 고성장을 유지하는 배경이 뭘까? 성장 경쟁력은 뜻밖의 영역에서 나왔다. 이 회사는

과거 누구보다 앞서서 제조 공정의 수직통합과 공장자동화를 추진했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과 맞아떨어졌던 것이다.

의류 제조 공정은 크게 방직^{Spinning(섬유에서 실Yarn을 뽑는 공정)}, 방직^{Weaving(실로 옷감Fabric을 짜는 공정)}, 염색, 봉제^{Garment}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봉제 회사들이 주문에 적합한 옷감을 외부에서 사오는 데 비해, 이 회사는 자체 방직, 염색 설비로부터 공급받는다. 소위 수직통합의 심도가 가장 깊은 회사다. 과거에는 수직통합의 장점이 소싱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장점이 부각되었다. 납품 기한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 수직통합이기 때문이다.

의류 패션 산업의 유통 구조는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었다. 과거에는 의류 제품 주문 발주에서 납품까지 몇 개월, 심지어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간이 주 단위로 크게 줄었다. 이런 변화는 패스트 패션 기업들이 주도했다. 패스트 패션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리더 자리^{ZARA(인디텍스의 대표 브랜드)}는 주문 이후 매장 입고에 걸리는 시간이 15일 이내인 제품 비중이 40%에 이른다.

그런데 최근에는 패스트 패션의 개념조차 구식이 되어버렸다. 이커머스 모델이 확산되면서 패션과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회사들은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유행할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탈 에듀케이션과 같은 중국의 리딩 교육업체들은 맞춤형 수업에 적용 가능한 교육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짧아진 납품 기간에 맞춰 생산하려면 생산공정이 자동화되어야 하고 중간에 제품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이 빨라야 한다. 선저우 인터내셔널과 같은 회사들은 방직과 염색 공장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어 브랜드 회사의 납기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봉제업체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문을 놓치고 있다.

이 차이가 의류 하청업체들의 운명을 가르고 있는 것이다. 의류 하청 제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전통 산업의 비즈니스 논법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인공지능과 만난 교육산업

인공지능이 뜻밖의 영역에 적용되는 사례로 교육업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산업의 가장 큰 장벽과 한계는 뭘까?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육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 학생들을 흡인하는 강의 능력을 갖춘 강사를 고용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 일이며 진입 장벽도 낮다. 가장 큰 난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개별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맞춤형 평가를 인간(선생님)이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고비용 구조가 된다.

하지만 만약 맞춤형 평가와 지도를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한다면? 한 기업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훨씬 저렴하게 대량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탈 에듀케이션^{TAL Education} 등 중국의 선두 민간 교육업체들은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투자가 한창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교실에 컴퓨터 인식능력을 갖춘 카메라를 대량 설치한다. 수업 중 학생들의 표정과 태도를 읽어들인다. 그동안 축적된 표정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에게는 보충 지도가 들어간다.

아직은 인공지능을 교육산업에 적용하는 초기 단계라 그 성과를 논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동안 규모의 경제가 잘 통하지 않았던 산업(교육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데 성공한다면 교육업 비즈니스 모델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

아시아의 로봇 산업

로봇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가 가파르다. 2017년 중국 로봇 출하량은 전년 대비 70% 성장했다. 로봇이 향후 산업과 사회에 미칠 영향도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를 것 같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로봇이 인간(노동력)을 완전하게 대체하는 영역이 급증할 것이다. 둘째, 로봇과 인공지능의 가격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려가고 있다. 셋째, 중국이 로봇과 자동화에 목숨을 걸고 있다.



로봇 산업을 이끄는 아시아의 기업

로봇 산업의 성장으로부터 누가 수혜를 볼까? 당연히 로봇이나 로봇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로봇 수요가 대단히 클 것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 체인에 속한 기업은 앞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로봇 산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로봇 산업은 철저히 아시아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 10대 로봇 메이커 중에서 6개가 아시아에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일본의 파나스(Fanuc), 야스카와전기, 가와사키중공업 등이다. 유럽에서 유명한 기업으로는 ABB와 쿠카(KUKA)가 있다. 쿠카는 2016년에 중국의 가전업체 메이디(Midea)가 인수했다. 그래서 2017년 기준 전 세계 10대 로봇 메이커 가운데 7개를 아시아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한편 10대 메이커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 중에서 두드러지는 기업도 아시아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손정의 회장이 이끌고 있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이 회사는 2017년 이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알파벳으로부터 인수했다. 기존 로봇 사업 부문과 함께 소프트뱅크는 지금 휴머노이드 계열 로봇 시장의 최대 강자로 올라섰다.

선두 그룹이 확실한 로봇 핵심 부품 산업

로봇 핵심 부품 영역에서는 아시아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크다. 로봇의 핵심 부품은 감속기(Reducer), 서보모터, 컨트롤러인데 이것을 정교하게 가장 잘 만드는 회사 대부분은 일본에 있다. 특히 감속기는 일본의 나브테스코(Nabtesco)가 전 세계 공급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 2위 기업 역시 일본의 하모닉(Harmonic)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5%에 이른다. 감속기는 기어의 집합체로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로봇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절대적이다. 로봇이 작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 팔을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속도로 멈추는 것이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감속기이다. 그 중요성 때문에 로봇 팔(매출) 원가에서 감속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그런데 감속기를 일본계 기업 몇 개가 독과점하는 이유가 뭘까? 감속기는 금속학, 기계공학, 정밀가공이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 전기 전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로봇의 핵심 부품은 여전히 기계공학의 영역 안에 있다. 이 부문에서 소수의 일본 기업이 오랫동안 꾸준히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해왔는데, 로봇 수요가 급증하자 이들 기업이 큰 수혜를 보게 된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핵심 기계 부품인 서보모터 시스템 부문 역시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은 영역이다. 이 역시 일본계 기업이 꽉 잡고 있다. 미쓰비시전기, 야스카와전기, 나이텍Nidec 등이 그들이다. 이 중에서 흥미로운 기업으로 나이텍을 꼽을 수 있다. 이 회사는 ‘일본전산’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회사이다. 일본 기업치고는 인수 합병에 능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이 회사는 모터 관련 영역에 집중적으로 인수 합병, 투자를 감행해 모터 부문에서 세계 제일이 되었다.

특히 경쟁력의 핵심을 변함없이 유지하되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어왔다. PC가 대세이던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이 회사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의 구동 모터 부문에 집중 투자해 세계 1위가 되었다. 하지만 HDD가 SSD를 대체하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자 이 회사는 2010년 이후 로봇 서보모터, 자동차 모터 컨트롤러 부문으로 사업군을 빠른 속도로 옮겨가고 있다. 모터에 대한 수요는 로봇뿐 아니라 전기차 등에서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차에서는 배터리와 모터(인버터)가 내연차의 파워트레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미래 성장에 매우 잘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3국의 로봇 산업 전망

감속기와 서보모터 시스템 등 핵심 부품에 비하면 로봇 어셈블리(완성된 로봇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는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어셈블리 작업은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들여와 시스템 통합만 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이 낮은 탓에 후발 주자 중국 기업이 가장 열심히 뛰어드는 것도 바로 이 부문이다. 중국의 시아순Siasun이 대표 사례다. 이 회사는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능력은 없지만 중국 로컬 고객 기업과의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로봇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박하다.

하지만 어셈블리(로봇 메이커) 중에서 일부 리더의 지위는 매우 견고하다. 리딩 로봇 메이커가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해 수직 계열화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화낙이다. 이 회사는 감속기를 제외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든다. 특히 남들보다 앞서 로봇 성능 개선에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도입, 경쟁력의 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 전 세계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화낙 로봇들로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규 로봇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후발 주자가 가질 수 없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로봇 산업의 주도권은 여전히 일본 기업에 있으며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한국은 제조업 노동자 일인당 로봇 채택률이 전 세계 1위인데도 로봇 산업 기반이 거의 없다. 반도체 자동화 장비 쪽에서는 좋은 기업이 많지만 일반적 의미로는 로봇 부문에서 두드러지는 기업이 없다. 그동안 필요한 고급 로봇을 일본과 독일 기업에서 사서 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는 늦어 보인다.

중국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첫째, 자국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40%를 생산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 잘하는 기업이 나올 법하다. 중국계 중에서 눈에 띄는 회사는 한스레이저Han's laser, 선전 이노벤스 등을 들 수 있다. 선전 이노벤스는 엘리베이터 등에 장착하는 인버터(AC모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2007년부터 로봇용 서보모터 부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전기차용 모터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스레이저는 중국 저출력 레이저 머신 제조 1위 업체다. 로봇을 많이 쓸수록 레이저 머신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더 많은 공정을 로봇이 수행한다면 이전에는 안전성 때문에 쓸 수 없던 공정에도 레이저 머신을 적용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힘들어진 산업

4차 산업혁명이 모든 분야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의 성장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아시아 산업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아시아의 IT 아웃소싱 서비스산업, 은행업, 자동차 산업 등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임금 경쟁력이 약화되는 IT 아웃소싱 서비스산업

인도의 IT 서비스산업은 20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다. 인도 IT 서비스산업의 매출 규모는 1990년대에 사실상 제로에서 2015년 1,470억 달러(인도 GDP의 8% 수준)까지 증가했다. 표면적 이유는 전 세계가 광섬유로 연결된 인터넷 혁명 덕분에 뉴욕에 소재한 기업이 벵갈루루에 있는 인도 기업에 IT 하청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IT 아웃소싱 산업이 급성장하게 된 이면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도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임금이 미국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저렴하다는 점이다. IT 서비스산업에서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라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소다.

하지만 문제는 인공지능 때문에 인도 IT 산업의 임금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확산되면서 기업 고객에게는 전통적 방식의 IT 아웃소싱을 할 유인도 적어졌다. 과거에는 기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입한 후 프로그램의 적용이나 사후 관리를 인도 IT 회사에 아웃소싱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

하면 전통적 방식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게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도 IT 서비스 기업에 아웃소싱을 많이 주던 기업군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가령 아마존과 같은 신흥 이커머스 기업은 고성장하는 반면 월마트 등 전통적 소매업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기업은 자체적으로 뛰어난 IT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IT 서비스를 아웃소싱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핵심 경쟁력을 잃고 있는 은행업

은행업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시대에 좌불안석이다. 은행업의 핵심 경쟁력은 저렴한 예금 수취 능력(Cheap Funding Cost)과 여신 관리 능력(Asset Quality)이다. 빅데이터는 이 양 측면에 모두 위협이 될 것 같다. 수신(예금) 측면에서는 소비자와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소셜 미디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경쟁력 있는 예금 수취 기관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에는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이라는 금융 자회사가 있다. 이 회사의 위어바오^{Yuebao}라 불리는 머니마켓펀드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2017년 1,500억 달러(약 168조원)가 넘는다. 한국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액이 200조원 전후이니, 알리바바 머니마켓펀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여신 관리 능력 측면에서도, 대규모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기존 은행에 비해 여신 관리 능력이 부족할 것 같지 않다. 이커머스 기업은 기업의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한 실시간,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은행의 대출 상담역보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더 잘 이해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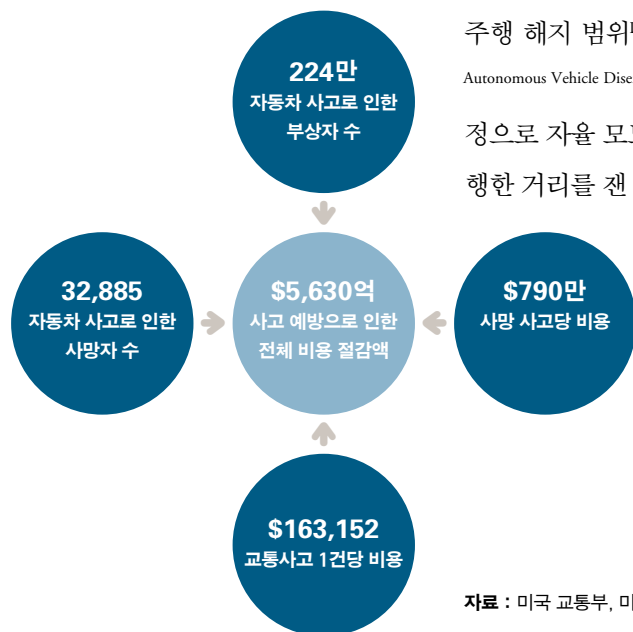
‘자율주행차’라는 도전을 앞둔 자동차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과 인공지능을 응용한 대표적 사업 모델은 자율주행차 사업이 될 것이다. 기존 자동차업계에는 엄청난 도전이다. 자율주행차의 상업성과 사회경제적 가치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하다.

우선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 자동차 사고율은 급감할 것이다. 우리는 교통사고가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통계를 보면 자동차 사고의 95%는 운전자의 미숙함이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 모건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자동차 사고로 연간 6,25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다. 만약 미국이 자율주행차로 완전히 이행하면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대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연간 5,630억 달러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미래에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자율주행 OS의 성능 차이가 될 것이다. 현재 자율주행 OS의 선두 주자는 알파벳(구글)의 웨이모^{Waymo}다. 웨이모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웨이모의 주행 해지 범위^{Disengagement Range}는 8,000km에 이른다^{Miles Driven Per Disengagement 2016 by Autonomous Vehicle Disengagement Reports 2016}. 주행 해지 범위는 자율주행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율 모드를 해제하고 인간에 의한 수동 모드로 전환하기 전까지 주행한 거리를 잴 것이다. 웨이모는 2017년 상반기 미국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이행 시,
미국 경제에서의 비용 절감 분석



자료 : 미국 교통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관리국, 연방고속도로관리국, EPA, FDA, AAA, 모건스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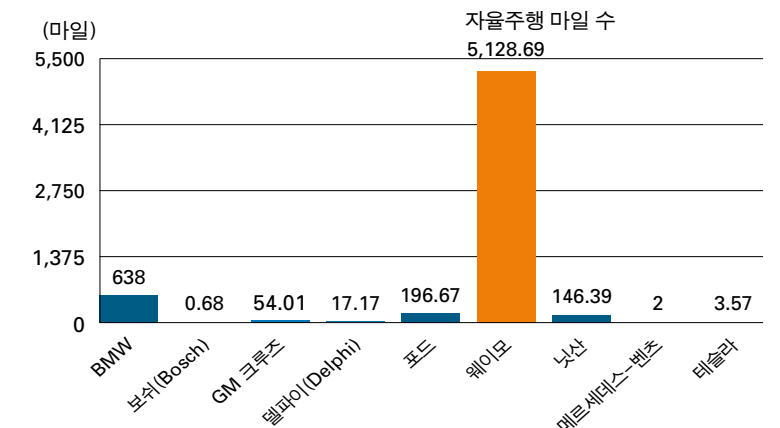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2017년 11월 현재, 큰 사고 없이 택시 운행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만약 알파벳의 웨이모가 앞으로 출시하는 모든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로 채택된다면 어떨까?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OS를 심어 알파벳이 전 세계 모바일 OS를 장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자동차용 OS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소프트웨어 회사가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중국계 테크 회사가 자율주행 OS를 제공하게 될 것 같다.

물론 완성차업체는 자체적으로 만든 자율주행 OS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GM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벤처 크루즈^{Cruise}를 인수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매우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 만약 완성차업체가 자사가 만든 자율주행 OS를 고집했다가 알파벳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1위 핸드셋 제조업체였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에 소프트웨어에서 밀리는 바람에 판매량이 급감했다. 대형 완성차업체 중 일부는 ‘또 다른 노키아’로 전략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중소형 완성차업체 중 일부는 알파벳의 웨이모 등 최고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일찍부터 장착, 대형 완성차업체를 순식간에 따라잡는 드라마틱한 일도 발생할 것 같다.

물론 자율주행 시대가 완성차업체에 일방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주행에 대한 빅데이터는 완성차업체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쟁력 원천, 이를테면 파워트레인의 성능, 브랜드 등이 자율주행차(및 전기차) 시대에는 덜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업계 순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업체야말로 정말 잠 못 드는 밤이 지속될 것 같다. ■

2016년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에 보고된 자율주행 기록



자료 :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국(DMV) Autonomous Vehicle Disengagement Reports 2016

● 이 스페셜 코너는 저자의 책 《아시아 투자의 미래》를 바탕으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금융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문에 언급된 기업은 글의 내용상 적합한 사례로 선택되었을 뿐 투자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17-04760호
(2017.10.26 ~ 2018.10.25)

미래에셋 연금, 클래스가 다릅니다

경험과 지혜는 어느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이
오랜 시간 쌓아온 연금노하우와 함께 하십시오.
일류 파트너가 일류 연금을 만듭니다.

증권업계 최다 퇴직연금펀드 보유
(금융투자협회 / 2017.02.01 기준)

국내최초 부동산 임대수익 포함
연금펀드 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모펀드 기준)

미래에셋생명 MVP 펀드
총자산액 7,200억원 돌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 2017.10.15 기준)

변액연금 해외투자비중 업계 평균의 4배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 2017.07.31 기준)

운용업계 최대 연금펀드 라인업 구축
(제로인 / 2017.07.31 기준)

국내최초 TDF펀드(생애주기펀드) 개발

증권업계 1위 퇴직연금 적립금
(금융투자협회 / 계열사 실적 제외 / 2017.06.30 기준)

글로벌 자산배분으로 차별화된
변액보험 운용

국내최초 IRP비대면계좌 개설 서비스

운용업계 1위 개인 / 퇴직연금 수탁고
(금융투자협회 / 2017.07.31 기준)

국내최초 투자교육연구소·은퇴연구소

미래에셋자산운용 평생소득연금 혼합자산투자신탁 (인출식연금)

- 국내외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배당금, 글로벌채권수익을 더해 더 커진 안정성 기대
- 금리+a의 꾸준한 수익 추구, 인출 뒤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종류C-P 기준 ■ 설정일: 2017.06.23 ■ 판매방법: 17시 이전(경과후) : 제5(6)영업일 기준 제9(10)영업일
환매대금 지급 ■ 선취수수료: 없음 ■ 환매수수료: 없음 ■ 총보수: 연 0.82% (운용보수: 0.30%, 판매보수:
0.48%, 신탁보수: 0.02%, 사무관리: 0.02%) ■ 펀드등급: 4등급 (보통위험)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발생 가능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자산배분 퇴직연금랩

- 글로벌 시장에 맞추어 자산배분, 상품선정,
리밸런싱 등 대응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전문가가 짠 모넬포트폴리오(MP)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객 수익을 관리

미래에셋생명 투자전문가의 변액연금보험 “글로벌자산관리”

- MVP펀드 및 총 38개 펀드를 통해 글로벌 자산배분 가능
- 투자 상황에 따라 안정형/투자형 계좌 분리 운영 가능
- 최저연금액 보증(매년 생존시 지급 받는 연금액의 총액기준 120% 까지)
※ 단, 최저연금액 보증형의 안정형 계좌 100% 선택 및 60세 연금개시시
※ 최저연금액 보증형에 한함

■ 집합투자증권에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과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랩어카운트 계약 전에 투자대상, 운용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등에 관한 약관, 계약권유문서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랩어카운트 수수료 연 0.05% (단, 집합투자상품의 보수, 수수료, 비용 및 투자 일임수수료 별도 부담) ■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연금적립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igo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해외투자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계정 투입시에 사업비가 차감됩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4945호(2017.10.27)



OBLIGE
CLUB

프리미엄 라이프

- 20 Season** 새해의 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세계의 음식
- 24 Heyday** 행복을 위한 새해 계획과 실천 방법
- 26 Heritage**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 30 Futurology** 과학적인 환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보여줄 미래
- 34 Travel** LA의 숨겨진 명소, 샌타바버라 & 말리부 비치
- 38 Recommend**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감성
- 40 Review** 가장 저렴한 예술에서 가장 값비싼 예술이 되기까지
<Hi, POP-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展>

Premium Life

새해의 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세계의 음식

2018년 무술년이 밝았다.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것은 전 세계인의 공통된 마음이다. 하지만 이를 담아내는 방법은 문화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세계 각국의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음식을 가득 차린 식탁을 들여다본다.



중식당 '유유안'의 '은대구탕면'과 '소고기 콘지', '칠리 소스 마리네이드 새우 완두콩 냉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인 새우는 웃음소리를 뜻하는 한자와 발음이 같아서 한 해를 밝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크고, 밝고, 화려하게 맞이하는 중국의 새해

중식당 '유유안'의 담백한 은대구탕면에는 먹기 좋게 손질한 은대구 필레를 올렸다.



중국에서는 매년 12월 31일 새해 카운트다운을 마치고 나면 폭죽놀이가 시작되는데, 그 강도와 화려함은 한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힐 정도다.

새해 첫날인 원단절(元旦節) 아침에는 장수를 기원하며 면 요리를 먹는다. 긴 면발처럼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담은 면 요리는 지방에 따라 다양한 재료로 만든다. '해마다 풍요로워지길 기원한다'란 뜻의 '넌넌 유위(年年有余)'란 말은 중국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신년 인사 중 하나다. 마지막 글자 '위(魚)'는 물고기를 뜻하는 '위(魚)'와 발음이 같아 새해에 생선 요리를 즐겨 먹는다.

중국인의 혼한 아침 메뉴인 죽도 새해에는 복을 기원하며 먹는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하다'란 뜻의 '핑이주쓰이(丰衣足食)'의 세 번째 글자 '주(足)'는 광둥어로 죽을 뜻하는 글자와 발음이 같다. 과거 궁핍했던 시절 소고기를 사 먹기 어려웠던 중국인들은 죽을 만들어 많은 이들이 나누어 먹고는 했다. 새해에는 보다 나은 삶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소고기를 넣은 죽을 만들어 먹는 중국인들의 모습은 경제적 여건이 많이 좋아진 지금도 종종 볼 수 있는 문화 중 하나다.

양력으로 맞이하는 일본의 명절, 신정

일식당 '키오쿠'의 '말린 고추를 올린 한우 등심 우동'은 파를 많이 사용하는 간사이 스타일을 재해석한 것이다. 시원한 국물과 쫄깃한 수타면은 정초의 특별한 면 요리로 알맞다.



대부분의 동양권 국가에서 양력설이 아닌 음력설을 중시하는데,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음력설을 금지하고 매년 1월 1일 양력설만 쉰다. 새해 아침이 되면, 많은 일본인이 가까운 신사를 찾는다. 이를 '하쓰모데(初詣)'라고 하는데, 새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과 새해 음식을 즐긴다. 주로 조림 요리인 '오세치(御節)'나 인절미 떡국인 '오조니(お雑煮)'를 먹는다.

정초에는 많은 가정에서 소박하게 메밀국수나 우동을 먹으며 복과 장수를 기원한다.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면 요리가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귀한 손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면 최고급 재료로 손꼽히는 복어를 대접한다. 복어는 겨울철 대표 고급 어종으로 특히 자연산 활복 사시미는 복어 요리의 진수다. 일본에는 '복어를 먹지 못하는 이에게 후지산을 보여주지 않는다'란 말이 있다. 복어는 미식의 정점이라는 뜻이다.

일본인은 정초에 꾸민 꿈으로 한 해의 운을 점친다. 후지산, 매, 가지가 나오면 길몽으로 여긴다. 특히 후지산이 나오면 최고의 길몽으로 한 해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식당 '키오쿠'의 '말린 고추를 올린 한우 등심 우동'과 '복어 3종 진미와 복어 사시미'. 복어는 살 자체로도 진미인데 특히 아귀간과 메네기(눈썹파), 다이콘 오로시(간 무), 와인 젤리와 특제 소스를 곁들여 즐기는 복어 3종 진미는 복어 맛의 진수를 느끼게 해준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을 비는 이탈리아의 새해 첫날

이탈리언 레스토랑 '보칼리노'의 '카탈라나 샐러드를 곁들인 마리네이드 바닷가재'와 '성게알과 케이퍼 파우더로 맛을 낸 레몬 풍미의 리소토'.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인 가재는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한다. 고급 해산물인 바닷가재 요리와 성게알, 케이퍼 파우더를 올린 리소토는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만찬에 적합한 메뉴다.



이탈리아에서도 중국처럼 떠들썩한 불꽃놀이를 즐기면서 새해를 맞는다. 조금 다른 풍경은 열기구를 날리거나, 와인 등을 곁들여 축하를 들며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밤새 파티를 즐기는 것이다. 곳곳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Felice Nuovo Anno'나 '근하신년 Buon Anno'와 같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새해를 맞는다.

이탈리아인들은 새해 전날 마지막 만찬에서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음식을 먹는다. 주로 '콘테키노 콘 렌티키에 Cotechino Con Lenticchie'를 먹는데, 돼지 발로 만든 소시지에 렌틸콩을 곁들인 가정 요리다. 한 해를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탈리아인들은 땅을 굽지 않는 돼지를 먹어야 잘산다고 믿는데, '굽는다'란 뜻이 '궁핍하다'는 뜻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탈리아는 해산물 요리가 특히 발달했다. 특별한 새해를 맞이하고 싶을 때 이탈리아인들은 와인과 함께 고가의 해산물 요리로 풍성한 만찬을 즐긴다. 특히 선호하는 해산물은 바닷가재와 붉은 새우, 성게알 같은 고급 어종이다.

세배와 떡국으로 시작하는 한국의 새해

라운지 '마루'의 떡만둣국과 바지락칼국수. 떡만둣국은 소고기 육수를 우려낸 진한 국물에 말랑한 떡과 속이 꽉 찬 만두가 잘 어울린다. 국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인데, 바지락칼국수는 삼삼하고 은은한 맛에 색색의 고명을 더해 정초의 잔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아침에 떡국을 먹고, 설빔을 차려 입고 이웃과 친척 어른들께 세배하는 풍습이 있다. 설날 전날인 설날 그믐날부터 설날 아침 사이에 복조리를 벽에 걸어놓고 복을 빌기도 했다. 대나무로 만든 조리는 틈새에 눈이 많아 샷된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와 쌀을 이는 도구라 한 해의 복이 쌀알처럼 일어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초에 복조리를 사는 풍습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복조리는 전통 장식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먹는 떡국은 장수와 한 해의 풍요를 뜻한다. 긴 가래떡은 장수를, 동글동글한 동전 모양으로 썰어놓은 가래떡은 재물운과 행복을 상징한다. 그리고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떡국을 '나이를 더하는 떡'이라는 침세병 添歲餅이라 불렀다. 설날 아침에는 밥대신 떡국으로 조상 제사의 차례를 모셨다. 여기에 만두를 넣으면 떡만둣국이 된다. 주로 중부와 북부 지방에서 떡만둣국을 즐겨 먹었다. 정초에 즐기는 떡만둣국은 푸짐하게 빚은 만두와 정갈하게 썬 떡 그리고 4색 고명을 올리면 훌륭하게 완성된다. 한 살 더 나이를 먹는 아쉬움도 잠시 뒤로할 만큼 멋진 새해맞이 식사가 될 것이다.■

행복을 위한 새해 계획과 실천 방법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며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다. 하지만 실천과 성취에
짓눌려 이조차 스트레스고, 고민이 될 수 있다. 행복에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새해의 감성 목표 계획법, 작심삼일을 넘어설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에 짜증이 나고 생각만 해도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다. 새해만 되면 실천
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또 묻고, 다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억지로라도 뭔가 계획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대체로 계획이 숙제처럼 내 삶을 무겁게 하는 내용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 잘 지키기도 어려워 결국 지난해에 실패 경험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 쉽다. 그렇다고 목표를 세우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목표는 중요하다. 목
표가 있어야 만족감도 높일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숙제 같은 자기 계발 목표와 더불어 내 마음이
원하는 감성 목표도 함께 세우면 어떨까? 올해의 감성 목표 세우기와 작심삼일 극복 방법을 실
천해보자.

올해의 감성 목표 세우기

먼저 종이 두 장을 좌우로 나란히 펼쳐놓는다. 그리고 우선 왼쪽 종이에 올해 목표 5개 정도를 정
해본다. 일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운동이나 외국어 등 자기 계발과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
다. 다 적었으면 그다음엔 오른쪽 종이에 '2018년이 나의 마지막 해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는 것이다. 올해의 버킷 리스트라 할 수 있다. 죽음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재수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가끔 죽음이란 단어를 내 뇌의 감성 영역에 던져보는 것은 상당한 심리적 유익이
있다. 내 마음, 내 감성이 정말 하고픈 일이 머릿속에서 따다닥 떠오르기 때문이다.

다 썼으면 오른쪽과 왼쪽의 목표를 비교해본다. 하나도 겹치는 것이 없다면 나는 너무 건조한 이
성적 목표로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범생의 1년 목표인 셈이다. 여기
서 모범적인 삶이란 내 개인의 감성적 가치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에 더 충실하게 사는 삶
을 이야기한다. 물론 이 또한 훌륭하고 소중한 가치의 삶이다. 그러나 너무나 모범적으로만 살면
우리 감성은 질식하기 마련이다. 행복 과학의 연구 결과는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해지면 그 이후로
는 소유보다는 심리적 자유감이 상승할 때 사람의 행복도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자
유감은 내 개인적인 감성의 가치에 만족 할 때 찾아온다.

버킷 리스트에 적힌 일만 하며 살 순 없지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 감성이 위로를 받는다. 그
리고 한 개 정도는 올해 꼭 도전해보자. 생존을 위한 목표 이상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감성의
목표도 중요하다.

작심삼일 극복법

강력하고 철저한 계획이 성공 경험에 가까운 듯하지만 목표가 처음부터 너무 크면 오히려 작심
삼일로 끝나버리기 쉽다.

‘이제 술 끊고 매일 아침 수영을 하겠다.’ 목표는 크고 멋지지만 3일 열심히 하다 하루 빠지면 계획
을 못 지킨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 다시 하려니 기분이 나빠져서 아예 그만두어버리게 된다.
자기가 만든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람은 동기가 확 꺾여버린다. 작심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에 대한 지속적 동기부여가 필수적이다.

작심삼일을 막고 다이어트나 금연 같은 건강 행동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잘 정착시키는 데 중요
한 심리학 요인은 자아 효능감^{Self-Efficacy}이다. 내가 어떤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자아 효능감은 동기부여와 직결되기에 자아 효능감을 키울 때 건강 행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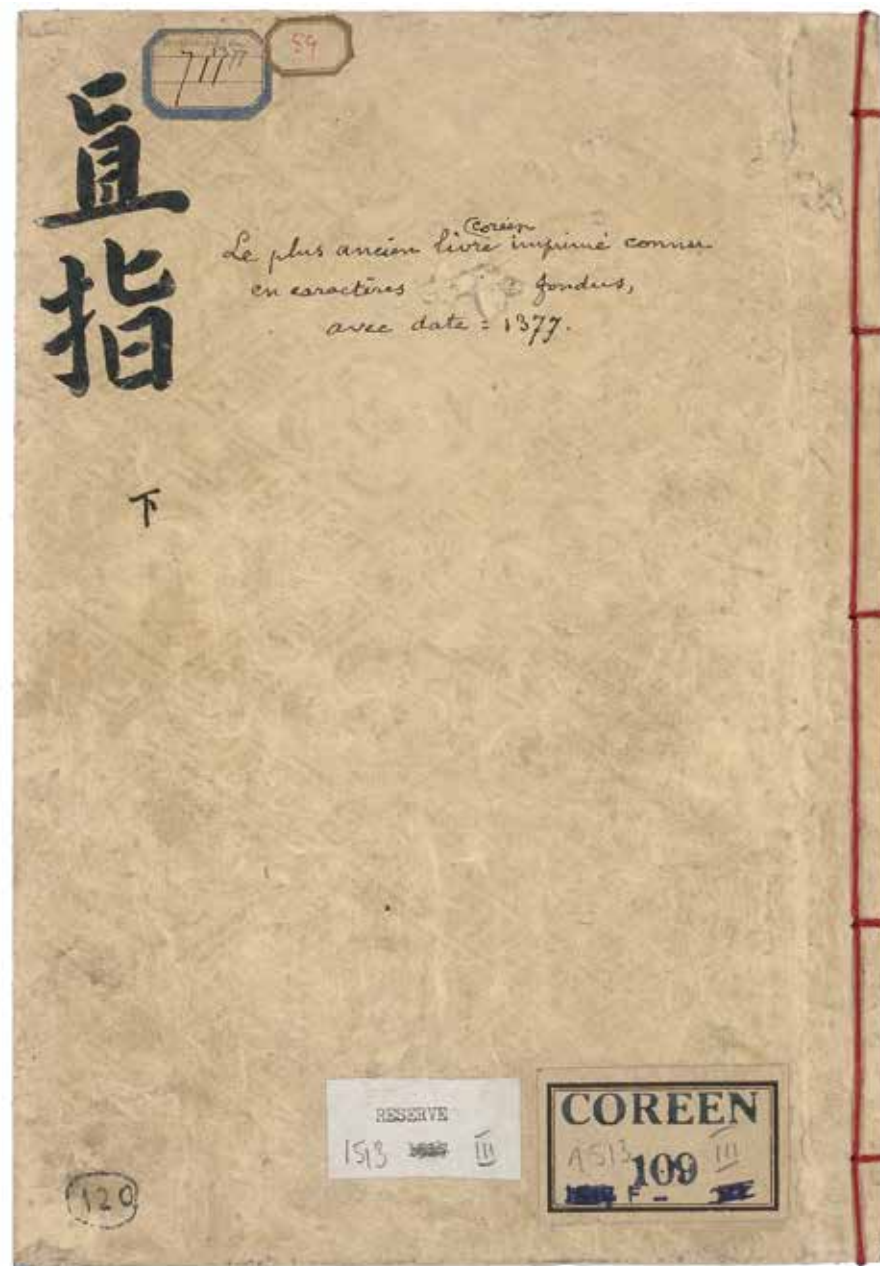
자아 효능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것이 첫 성공 경험이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고 하지만 내 건강
행동 변화를 위한 심리 전략 측면에선 너무 큰 계획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패 경험은 자아 효능감
을 떨어지게 하고 변화에 대한 동기를 앗아가 작심삼일의 실패로 끝나버리게 하기 때문이다. 통증
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작은 계획부터 시작하여 서서
히 계획을 확장하는 것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자아 효능감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주변의 정서적 지지, 긍정적 칭찬도 자아 효능감
증대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할 마음에 다이어트나 금연 같은 노력을 숨
어서 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소문내고 내가 잘하면 문자나 전화로 칭찬 많이 해달라
부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글 _ 윤대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기업과 정부 기관 등에서 현대인의 소진 증후군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최신 신경과학과 정신의학에 근거한 접근 방식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저서로는 <마음 아프지 마>, <윤대현의
마음 성공> 등이 있으며, <나는 초콜릿과 이별 중이다>라는 귀여운 제목의 책도 펴냈다.

〈직지심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이다. 2001년 9월 4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현존하는 금속활자본 중 세계 최고^{最古}임을 공인받았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 〈직지〉와 융성한 고려의 인쇄 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있는 〈직지심체요절〉하권. 마지막 장에는 1377년에 흥덕사에서 간행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금속활자 인쇄의 발명

인쇄는 지식 정보의 발원지로서 문화 발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고, 계승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한 나라의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주역이며, 문화와 교육 수준을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인쇄는 문화를 탄생시키는 산모^{産母}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 아이젠스타인^{E. L. Eisenstein}은 서양이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1455년 구텐베르크^{Gutenberg}가 〈구텐베르크 성서〉를 금속활자로 인쇄한 덕으로 보고 있다. 금속활자 인쇄를 통해 인류의 지식이 전수, 확산,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 문화의 폭발적 부흥을 이끈 금속활자 인쇄술은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 간행 연도보다 78년 앞선 1377년에 고려에서 발명했다. 당시 고려는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혼란스럽던 사회가 안정되는 시기였다. 이에 따라 문신의 양성이 요구되어 많은 양의 책이 필요했다. 그리고 다량의 책을 만들기 위해 인쇄술이 발전했다. 당시 인쇄는 목판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단기간 내에 여러 종류의 책을 간행하는 데에는 활자 인쇄가 편리했다. 목판은 인쇄하기 위해 책의 모든 페이지를 일일이 나무에 조각해야 하지만, 활자를 이용하면 글자를 배열하는 것만으로 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 시대 금속활자 인쇄 기록은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와 〈상정예문^{詳定禮文}〉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1239년에 간행한 목판본이 전하는데, 최이^{崔怡}의 발문에 따르면, “금속활자본을 다시 목판으로 새긴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1239년 이전에 이미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규보의 개인 문집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상정예문〉을 금속활자로 28부 인쇄하여 각 관서에 나누어 보관토록 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권의 책은 기록만 있을 뿐,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

1377(고려 우왕 3)년 7월에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했다고 기록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直指})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한다. 〈직지〉는 대한민국이 13세기 초에 금속활자를 발명한 슬기로운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이자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다. 이렇게 〈직지〉는 금속활자 발명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01호인 임인호 금속활자장이 2015년에 완벽하게 복원한 〈직지〉 상하권 금속활자.



〈직지〉를 만든 사람들

〈직지〉를 편저한 승려, 백운 화상의 이름은 경한^{景閑}(1298~1374)이고 호는 백운^{白雲}이다. 태고 보우 국사, 혜근 나옹 화상과 함께 고려 말의 3대 선사^{禪師} 중 한 분이다. 그는 제자들에게 선법^{禪法}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 범린의 도움을 받아가며 75세의 노안을 무릅쓰고, 〈선문염송집^{禪門粘頌集}〉 등의 문헌을 섭렵하여 불교의 깊은 뜻을 전하는 글을 모아 상하권으로 〈직지〉를 편저했다. 백운 화상이 입적한 후 스승의 가르침과 뜻을 기리기 위해 제자 승려인 석찬과 달잠이 1377년 7월에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비구니 묘덕의 시주를 받아 금속활자로 〈직지〉를 간행했다. 그리고 경기도 여주 취암사에서는 제자 범린, 자명, 혜전이 1378년 6월에 목판본으로도 간행했다.



〈직지〉가 간행된 고려 흥덕사가 있던 터. 흥덕사지가 청주에 있으므로 청주는 한국 인쇄 문화의 상징과 같은 도시가 되었다.



흥덕사 옛 터에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건립되었다. 〈직지〉를 비롯한 고인쇄문화 관련 유물과 흥덕사에서 발굴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직지〉는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내용인가?

흥덕사에서 간행한 금속활자본 〈직지〉는 상권은 현재 전하지 않고, 하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전한다. 총 39장 중 첫 장이 떨어져 없는 상태이며, 38장만 남아 있다. 표지에는 ‘直指 下’라고 붓으로 쓴 제목이 있고, 프랑스어로 “이 책은 1377년에 주조된 글자로 인쇄한 가장 오래된 한국의 책이다”라고 쓰여 있다. 종이는 닥나무로 만든 저지楮紙를 사용하였다. 표지와 속지는 조선 후기에 선장線裝으로 다시 개장改裝했는데, 5개의 구멍을 뚫고 붉은 실로 꿰맨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の 형태를 하고 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인쇄 연도(1377년)와 인쇄 장소(청주 흥덕사), 인쇄 방법(금속활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직지〉의 내용은 부처님과 조사祖師 스님들이 마음의 본체를 똑바로 가르쳐 보인 중요한 절목節目만 뽑아서 기록한 것이다. 즉 해인사의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과 수많은 조사들의 어록語錄에서 요점을 집약한 선불교禪佛敎에 있어서 최고의 교과서로 평가된다.

〈직지〉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까닭

1886년 프랑스와 외교 관계가 수립된 이후 초대 프랑스 대리공사로 부임한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葛林德는 한국에 호기심이 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궁중 무희였던 조선의 여인 이심(리진)과 결혼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조선에 두 번 부임한 외교관으로 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의 문화재를 수집했다. 한편, 플랑시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개최할 때 한국관을 담당하여 한국을 알리기도 했다. 이 박람회에 〈직지〉를 처음으로 공개 전시했다. 그리고 1901년에 모리스 쿠랑M. Courant이 〈조선서지〉에 〈직지〉를 “1377년 청주목의 흥덕사에서 주조된 활자로 인쇄되었다.”고 소개했다.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 보호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직지상’ 시상식. 2004년에 제정해 청주 또는 파리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플랑시는 1911년에 드루오 경매장에서 소장품 883점에 대한 물품의 경매를 실시했는데, 그중에 700여 점이 한국 자료였다. 그가 소장한 고서 대부분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구입했다. 그러나 〈직지〉는 보석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H. Vever가 180프랑에 구입해 소장하고 있다가, 그의 유언에 따라 195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여 오늘날까지 소장하게 된 것이다.

유네스코와 〈직지〉

1972년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 도서의 해’를 맞이하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책’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때 〈직지〉가 출품되면서 금속활자 발명이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한국이 최초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85년에 〈직지〉를 간행한 흥덕사터가 확인되고, 1992년에 청주고인쇄박물관을 개관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는 〈직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를 유치했다. 여기에서 〈직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4년에 유네스코에 기록유산과 관련된 상賞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유네스코에서는 상의 이름을 직지상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여섯 번에 걸쳐 시상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초 유네스코 산하 기구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Documentary Heritage, ICDH를 한국 청주에 유치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1992년 3월에 개관한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이 땅에 융성한 인쇄 문화를 총망라한 곳이다. 〈직지〉를 비롯한 한국의 목판인쇄, 금속활자 인쇄는 물론 개화기 이후 서양으로부터 전래된 인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그 밖에도 3D 프린터와 납활자 인쇄 체험, 전사 체험, 옛 책 만들기 체험 등 인쇄 관련 다양한 실감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글 | 사진 _ 황정하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985년에 〈직지〉의 간행지인 흥덕사지 발굴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3년부터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으로 한국 과학사에서 인쇄 기술을 전공했으며, 〈직지〉와 한국의 옛 인쇄 문화에 대한 글을 다수 발표했다.

과학적인 환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보여줄 미래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죽음으로 볼 수 없었던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혹은 내가 가보고 싶
었던 나라나 도시, 심지어 다른 행성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떨까?
미래에는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욕구를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술이 과학적으로
환상을 구현한다.



가상현실이 뛰어넘을 시간과 공간

미래의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수많은 변수가 예측을 불투명하게 만들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급속히 발전 중인 가상현실 기술이 '추억'을 재생하는 방법을 바꿔놓을 것이다. 만약 지금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해놓는다면, 그리고 20~30년 후 가상현실 기술로 이를 감상한다면 그냥 영상을 보는 느낌이 아닐 것이다.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살아난 추억을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우리는 추억을 회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추억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가상현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건 돈, 자원,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상현실에서 여행을 하든,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디자인하든, 심지어 도시 하나를 만든다 해도 실제 자원을 쓰거나 거액이 들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가상현실은 우리의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우리가 상상하는 무엇이든 마치 현실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VR 브랜드인 오쿨러스사의 오쿨러스 리프트. VR 기기의 초기 모델이다.

특히나 2012년에 등장한 '오쿨러스 리프트^{Oculus Rift}'라는 가상현실 헤드셋은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느끼게 해주는 주요 감각기관인 '눈'을 완전히 속이며 현실과 너무나 닮은 가상의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실 세계는 완전히 차단된 채 360도 어디를 둘러보든 가상의 세계만 보이는 경험은 사람들에게 마치 순간 이동 혹은 시간 이동을 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그 오쿨러스 리프트가 보여준 가상현실의 가능성에 매료된 페이스북은 2014년 무려 2조원이 넘는 금액에 오쿨러스사를 인수했고 이후 구글, 삼성,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수많은 글로벌 IT 기업이 가상현실에 투자하며 가상현실 붐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3~4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부동산 매물을 가상현실로 보여주는 서비스, 가상 자동차 시승 서비스, 가상현실을 이용한 역사 교육, 심지어 가상 연애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상현실 안에서 구현되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봅슬레이나 스키점프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존을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왜 가상현실 기기는 빠르게 보급되지 않는가?

이처럼 전 세계에서 가상현실에 투자하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현실 기기의 보급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나 가정 보급률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곳곳에 오픈하고 있는 VR체험 존이나 일부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서만 가상현실 기기가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가상현실 기기는 널리 보급되지 않는 것일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다. 고성능의 가상현실 전용 헤드셋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고성능 헤드셋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처리 성능을 갖춘 고사양의 PC가 필요한데, 이 역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큰 비용을 주고 기기를 구비하더라도 가상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가상현실의 주된 콘텐츠는 대부분 게임에 치우쳐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만한 필수 콘텐츠가 없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장시간 착용했을 때의 어지럼증과 불편함 문제다. 현대인들이 안경도 불편하다며 라식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겁고 어지러운 가상현실 헤드셋을 장시간 착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가상현실 산업계도 이러한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계속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 오클러스, HTC 등은 2018년 PC, 스마트폰과의 연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가상현실 헤드셋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한 앞으로 기존 LTE 통신 속도보다 20배 이상 빠른 5G 통신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고용량의 VR 콘텐츠를 전송하여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착용의 불편함 문제 역시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페이스북의 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2017년 F8 콘퍼런스에서 앞으로 5~7년 안에 기기의 크기가 안경정도로 작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현실에 상상을 더하다, 증강현실 기술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기술도 주목할 만하다. 가상현실의 경우 헤드셋을 착용하면 현실은 차단된 채 100% 가상의 세계만 보이는 반면, 증강현실은 현실의 세계가 그대로 보이는 상태에서 가상의 물체가 섞이는 기술을 말한다. 얼마 전 인기를 끈 ‘포켓몬 고’가 증강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는 주변을 스캔하여 가상의 물체를 혼합하는 증강현실 기기다.

실 기술을 이용한 게임이다. 하지만 포켓몬 고의 경우 가상의 포켓몬 캐릭터들이 현실과 다소 부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던 반면, 최근의 2세대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과 가상이 매우 자연스럽게 혼합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 대표적인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홀로렌즈^{Holo Lens}’라는 투명 헤드셋이었다.

홀로렌즈를 착용하면 기기에 탑재한 카메라와 센서가 주변 환경을 스캔한 뒤, 현실과 매우 자연스럽게 가상의 물체를 혼합한다. 예를 들어, 내 방의 탁자 위에 자연스럽게 가상의 물병이 올라간다가나, 내 방 소파에 자연스럽게 가상의 사람이 앉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일반 스마트폰만으로도 발달된 2세대 증강현실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일반 카메라만으로도 이미지 분석을 통해 공간이 얼마나 넓고, 어디까지가 바닥이고, 무엇이 탁자인지 등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이다. 덕분에 유명 가구 기업 이케아의 경우에도 2세대 증강현실을 이용한 가상 인테리어 앱을 출시했다.

2세대 증강현실 앱은 우리 집 공간을 스캔한 뒤 자연스럽게 가구를 섞기 때문에 보다 실체처럼 가상의 가구를 배치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고 방안을 돌아다니며 그 가구가 배치된 모습을 360도로 둘러보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애플의 ARKit을 지원하는 최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만 작동하지만, 구글 역시 ARCore라는 2세대 증강현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 곧 안드로이드폰에서도 다양한 2세대 증강현실 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실보다 더욱 현실 같은 가상이 온다

과거 인류는 정보 교류를 위해 글자를 만들고 인쇄술을 발달시켰다. 그 뒤에는 사진 기술이 발달하여 이미지로, 또 그 다음에는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을 보면 인류는 지금까지 단순화한 기호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수단으로 정보의 전달 매체를 발달시켜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동영상 다음으로 현실과 닮은 정보 전달 수단은 무엇일까?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단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 기술의 발달은 미래에 결국 현실과 가상이 구별되지 않는 시점까지 도달하고, 그 후에는 오히려 현실보다도 현실 같은 가상의 세계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영화 <매트릭스>는 그러한 현실보다 현실 같은 가상세계를 그린 영화다. 영화의 내용 중에 주인공 ‘네오’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네오는 가상의 세계보다 혹독한 현실의 세계에서 살아갈 것을 선택한다. 과연 실제로 가상현실 기술이 그러한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인류는 혹독한 현실을 선택할까, 아니면 달콤한 가상을 선택할까? ■

글 _ 황준원 미래채널 MyF 대표

매일경제TV <중시 오늘과 내일>, KBS <T-타임>, 토마토TV <미래예보>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미래학 전문가 패널로 활동 중이다. 4차 산업혁명에 불러올 미래 생활에 대해 소개한 책 <미래채널>을 썼다. 웹사이트 미래채널 MyF를 통해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전 세계의 최신 IT와 라이프 트렌드를 큐레이션해 소개하고 있다.

LA의 숨겨진 명소 샌타바버라 & 말리부 비치

사실 그동안 LA는 한국의 여행자들에게 딱히 환영받는 여행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다운타운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면서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여행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LA에서도 특히 햇살이 좋은 지중해풍의 예쁜 도시 샌타바버라와 럭셔리하면서도 평화로운 휴양지 말리부 비치를 소개한다.

Santa
Barbara
&
Malibu
Beach



지중해풍의 휴양도시, 샌타바버라

LA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샌타바버라(Santa Barbara)는 샌타이네즈(Santa Ynez)라는 계곡과 바다에 둘러싸인 독특한 지형으로, 1911년 덴마크 이민자들에 의해 솔뱅 마을과 함께 형성되었다. 바다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휴양지로 발달했고,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의 집이 있는 지역으로 유명세를 탔다. 스페인과 지중해풍의 새하얀 건물들이 이국적인 풍광을 만든다. 또 계곡과 바다 덕분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철엔 따뜻해 은퇴자들에게도 인기인 곳이다.

산뜻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아름다운 햇살이 있어 여유가 느껴지는 인기 휴양지지만 이곳에서 산책과 휴양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바닷가에서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한데, 돌고래 구경과 샌타바버라 주변을 도는 크루즈 투어, 카약과 웨이크보딩 등 다양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또한 떠오르는 와인 생산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 와인 쇼핑 혹은 와이너리 탐방은 필수다. 다만 대중교통보다는 차를 가지고 움직일 것을 권한다.



샌타바버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두 군데는 반드시 시간을 내서 둘러보자. 아름다운 경치에 한껏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샌타바버라 법원(Santa Barbara County Courthouse)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손꼽히며, 샌타바버라에서 누구나 가장 먼저 드르는 장소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시계탑 위의 전망대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1925년 지진 피해를 입은 후 1929년 전형적인 스페인 콜로니얼 양식의 건물로 복원되었다. 화이트 외관에 내부의 타일과 벽화는 원색의 컬러로 장식한 것이 눈에 띈다.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 전망대에 오를 수 있으며 주말이면 이곳 야외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리기도 한다. 매일 무료 가이드 투어를 진행한다.

올드 미션 샌타바버라(Old Mission Santa Barbara)는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신부들이 세운 종교 건축물로 1786년 건축되

었으니 이곳에서 가장 역사적인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1812년 지진 피해를 입고 1820년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축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이 인상적인데, 야자수와 잔디가 상당히 아름답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21개의 미션 중 늘 최고로 손꼽힌다. 화이트 톤 건물과 분홍색 돔의 조화도 아름답지만 건물 자체가 상당히 고풍스럽고 우아해 여행자들의 사진 촬영 장소로 인기가

아름다운 미국 서부의 해안, 말리부 비치

말리부 비치(Malibu Beach)는 샌타모니카에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타고 30분 정도 달리면 닿을 수 있는 미국 서부의 대표적 부촌이다. 35km 정도로 길게 펼쳐진 해

안을 뜻하는 '비치(Beach)'가 아니라 더 넓은 바닷가 지역을 뜻하는 '코스트(Coas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언덕 위에 자리한 고급스러운 저택과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의 조화가 상당히 아름답다.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와 미란다 커의 집도 이곳에 위치한다.

중심부인 말리부 라군 스테이트 비치(Malibu Lagoon State Beach)를 기준으로 유명한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말리부 피어에 자리한 말리부 팜(Malibu Farm)에서 브런치와 커피를 즐겨도 좋다.



바닷가에 위치한 덕분에 어떤 자리를 앉아도 탁 트인 태평양이 눈에 들어와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식사를 하든 커피나 와인을 즐기든 그 어떤 목적으로 방문해도 만족스러울 것이다. ■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감성

지휘자 금난새의 내가 좋아하는 책, 권하고 싶은 책

음악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전하는 지휘자 금난새에게 좋아하는 책과 추천하고 싶은 책을 물었다. 거장이 유년 시절에 좋아했던 책은 현재 절판되었지만, 책에 얹힌 추억담을 들어볼 수 있었다. 그가 책을 통해 권하고 싶은 것은 풍부한 감수성으로 일상을 새롭게 느끼는 일이다.



지금은 절판된 책, <생활의 예지>에서 느낀 책 읽는 즐거움

나에게 '좋아하는 책' 하면 생각나는 책은 어릴 때 즐겨 읽은 해리 골든의 <생활의 예지>다. 모두에게 권하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한국어 번역본은 오래 전 절판되었다. 이 책은 미국의 기자 출신 저술가인 해리 골든(1902~1981)이 생활 속 여러 가지 일을 기자의 눈으로 관찰해서 쓴 에세이 모음집이다. 깊은 철학은 아니지만 삶의 가이드와 같은 에피소드가 인상적이다. 인생을 보는 관점에 대한 여러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 시절 통학하는 길에 여러 번 읽어서 몇몇 이야기는 아직도 외우고 있다.

이 책에서 기억나는 이야기는 필자 해리 골든의 아버지에 대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이민자로 본국에서는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음악적 재능을 살려 교회 합창단을 지휘하는 일을 했다. 아들에게는 구두 수선공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해리 골든이 아버지에게 구두가 망가졌다고 말했더니 다음 날 아침에 감쪽같이 구두가 고쳐져 있었다. 그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숨겨졌다는 걸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였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속인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있는 그대로 사는 것만이 삶이 아니라는 것도. 필자가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가치, 새로운 희망을 갖고 떠난 것, 새롭게 살고 싶은 미래를 그려 노력해서 이뤄나가는 것의 가치에 깊이 공감했다.

또 하나 생각나는 이 책의 에피소드는 신문 스크랩에 관한 이야기다. 그가 어떤 기사가 중요해서 그 기사를 스크랩을 해놓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 그 기사보다 그 뒤에 있는 광고 같은 것이 역사적으로 더 중요하고 흥미로웠다는 이야기였다. 살다 보면 이면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요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인생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갖게 된 이야기였다.



<생활의 예지>

해리 골든 지음, 장왕록 옮김, 탐구당, 1989년 이후 절판.

예술가의 표현력을 느낄 수 있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고, 추천하고 싶은 책은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다. 얼마 전 프라하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래된 영화인 <클레오파트라>를 봤다. 역사 속 이야기인데도 그들이 주고받는 대사가 아주 흥미롭고 새롭게 느껴졌다. 주고받는 대사의 행간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 말맛이 느껴져서 어서 도착해서 책으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에 생명력과 캐릭터의 매력, 언어의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셰익스피어의 재능이다. 참신하면서도 딱 들어맞는 비유를 보면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까'하고 깜짝 놀란다.

셰익스피어가 이미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감성과 표현력으로 재창조했듯 음악 연주도 이와 같다. 스토리, 악보는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같은 시간을 보내도 개개인의 감성에 따라 느끼는 점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새해엔 더 많이 느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상상력과 감수성이 가득한 셰익스피어의 명작 희곡을 읽어보면 어떨까. 책 읽는 즐거움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송원문 옮김, 동인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의 1막에서 5막까지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로 1607년 경에 쓴 작품이다. 당시 영국인 사이에 로마와 그리스의 역사, <플루타크 영웅전>은 꼭 알아야 할 교양이었다.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소재를 따와 BC 40년부터 BC 30년까지 로마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극을 썼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고대 로마의 정치가 안토니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는 본래 연극을 위한 대본의 형태로 쓰였다. 우리가 소설로 알고, 읽은 그의 이야기는 후에 다시 정리된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그대로 읽으면 그의 문학의 본질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다.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말의 묘미를 음미하다 보면 시처럼 운율이 느껴지는 대사를 읊조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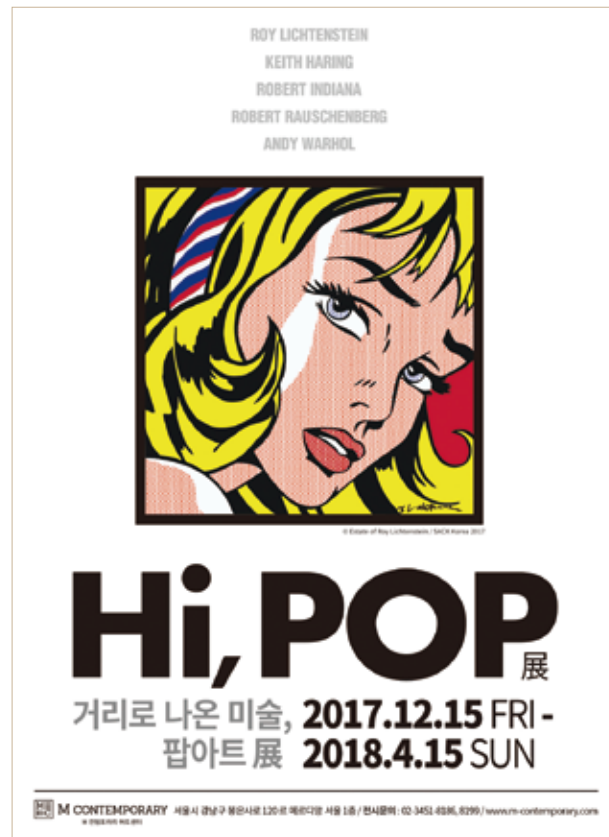
금난새

세계적인 지휘자로 1977년 카라얀 콩쿠르에 입상했고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캄머 오케스트라 등 해외에서 활동했다. 1998년 대한민국 최초로 벤처 오케스트라를 창단했고 청소년을 위해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통해 한국 클래식 대중화를 이끌었다. 열정적이고 활기 넘치는 지휘 덕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한경필하모닉 음악감독,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최정상의 연주를 이끌고 있다.



가장 저렴한 예술에서 가장 값비싼 예술이 되기까지 〈Hi, POP - 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展〉

팝아트는 예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그 단순하면서 직관적인 매력이 대중을 사로잡았고, 팝아트는 이제 현대미술에서 가장 고가로 거래되는 작품군 중 하나가 되었다. 팝아트 거장 5인의 작품 160여 점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에서 그 알기 쉬운 예술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보자.



있는 그대로, 느끼는 대로 즐기는 팝아트

‘팝아트의 아버지’라 불리는 리처드 해밀턴은 1956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전시는 〈이것이 미래다(This is Tomorrow)〉를 통해 팝아트를 주창한 작가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순간, 저렴함, 대량생산, 유희, 상업성’의 속성을 직관적으로 이용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재의 팝아트는 ‘영원, 고급, 유일성, 미학, 가치’로 대변되는 1960년대 모더니즘 미술의 정수가 되었다. 예컨대 앤디 워홀은 예술은 대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작품을 대량생산했고, 가격 또한 저렴하게 책정해 판매했다. 그러나 앤디 워홀의 사후 그의 작품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미술 작품이 되었다.

국내 최대 팝아트 전시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4월 15일까지 M컨템포러리에서 개최하는 〈Hi, POP-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展〉은 팝아트계의 거장 5인의 작품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전시다. 팝아트 하면 떠오르



Classic Love
© 2018 Morgan Art
Foundation / ARS, New York
- SACK, Seoul

는 대표적 작가인 로이 릭텐스타인, 앤디 워홀, 키스 해링, 로버트 인디애나, 로버트 라우션버그의 작품 16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팝아트 전시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세계 각국의 개인 소장작품 중 엄선한 작품을 선보여 그 가치가 남다르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전시지만, 특히 미국 팝아트 운동의 부흥기를 연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미국 팝아트의 정수는 물론 그 시대의 예술 기조도 함께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공간 연출에도 공을 들였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로버트 라우션버그에서 로이 릭텐스타인과 앤디 워홀을 지나 로버트 인디애나, 키스 해링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걷게 된다. 이 동선은 팝아트 변화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구성으로, 서로 다른 활동 시기와 독자적인 주제 의식을 유기적인 흐름으로 엮어내기 위한 것이다.

팝아트 거장들의 예술 세계

전시의 시작은 로버트 라우션버그가 연다. 우연성을 강조한 그의 작품은 임의로 선택한 이미지와 사물들 위로 물감을 흘러내리게 하는 작업을 통해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지워나간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선 ‘Tate’(1980년), ‘The Fest’(1990~1991년) 등 그의 대표작을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로이 릭텐스타인은 작품의 주요 테마는 ‘말풍선과 망점’이다. 검은 윤곽선과 원색 사이를 채우는 거대한 망점과 말풍선을 통해 로이 릭텐스타인이 던진 ‘블랙유머’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주요 작품은 ‘Girl with Hair Ribbon’(1965년), ‘Crak’(1963년) 등이 전시된다.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은 일상의 모든 것을 기호화하고 상품화했다. 메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재클린 케네디와 같은 유명 인사는 물론 캠벨 수프, 브릴로 박스와 같은 일상용품까지 그는 차이가 없는 획일성과 대량생산을 통해 ‘예술의 공장화’를 이끌었다. ‘Beethoven II. 392’(1987년), ‘Goeth II. 271’(1982년) 등 워홀의 대표작도 만나볼 수 있다.

타이포 설치미술로 유명한 로버트 인디애나를 대표하는 작품 <Classic Love>(2002년)도 전시된다. 뉴욕 지하 철역의 빈 광고판에 작품을 그리고, 그곳을 ‘실험실’이라 부른 키스 해링은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다. 춤과 음악을 사랑한 그는 전시 공간을 술과 음악이 가득한 클럽으로 탈바꿈시켰고, 그 안에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새겨 넣었다. 이번 전시에서 키스 해링의 작품은 ‘Three Eyed Man’(1990년), ‘Lucky Strike II’(1987년) 등을 소개한다.



Lucky Strike II
© The Keith Haring Foundation

직접 체험하는 관람객 참여 공간

5인의 아티스트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장 외에 체험 공간 ‘프린트팩토리’도 주목해볼 만하다. 앤디 워홀이 즐겨 사용한 실크스크린 기법을 실제로 체험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정의 금액을 내면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자들은 실크스크린으로 자신이 손수 찍은 팝아트 이미지가 담긴 에코백을 가져갈 수 있다.

팝아트 작품을 통해 우리 삶 곳곳에 산재한 일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에게 각기 다른 인식과 체험을 선사할 것이다. ■

* 기간 2018년 4월 15일까지



전시 〈Hi, POP-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展〉

장소 M컨템포러리
관람 기간 2018년 3월 1일(목)~3월 31일(토)
문의 1544-1555



오늘리제 클럽 매거진 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전시 〈Hi, POP-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展〉 관람권(1인 2매)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응모 방법은 89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저금리의 어려움이
노후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수백만 고객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드리는 투자전문그룹
투자를 통해 고객과 사회,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은
미래에셋 창업 이래 한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온 분들께 의지가 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위해
저희는 다양한 우량자산을 찾고 해외에 진출합니다

저금리를 넘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은행과 다른 투자전문그룹의 방식입니다
좋은 수익과 안정성으로 기여하겠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MIRAE ASSET
미래에셋

OBLIGE
CLUB

글로벌 자산 관리

- 44 은퇴 설계 은퇴 리스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48 글로벌 이슈/테마 세제 개혁이 유통업의 종말을 막을 수 있을까?
- 52 글로벌 플랫폼 기업 아마존, 무한 영토 확장의 비밀은 플랫폼
- 56 국내 이슈/테마 5G :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 60 핫 상품 성장 기회가 있는 이머징 시장에 주목하자

Global Asset Management

투자의 기본을 흔히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리스크를 단 하나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 금융 이론에서는 ‘변동성’을 리스크로 본다. 가격 변화의 폭을 리스크로 보는 것이다.

은퇴 리스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글 _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sg.lee@miraeeasset.com



일부 투자자들은 ‘화폐 구매력의 훼손’을 리스크로 보기도 한다. 이들의 시각에서는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예금과 같은 상품은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본다. ‘원금 손실 여부’를 리스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투자 원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모두 리스크로 본다. 일각에서는 이 중 몇 가지를 섞은 개념을 리스크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처럼 리스크에 대한 명료한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나 리스크 수용도에 따라 자신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의 관점에서 바라본 리스크는?

그렇다면 은퇴의 관점에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재무적 차원의 은퇴 설계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리스크는 몇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사망 직전에 자금이 다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은퇴 파산 리스크’라고 한다. 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생활비로 조달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또는 소득 확보가 절실하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긴 은퇴 시기를 보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 기간 동안 화폐 구매력을 지킬 수 없다면, 인젠가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말 것이다. 건강상의 리스크에 대한 고민도 필수적이다. 노화는 질병을 동반한다. 특히 후기 고령기(75세 이후)로 갈수록 몸이 아플 확률은 높아진다. 이때 큰돈을 병원비로 쓰게 되면 은퇴 파산이 앞당겨지거나 후기 고령비의 생활비가 급속히 줄어들것이다.

자산 규모가 큰 이들은 정책 리스크도 뺄 수 없다. 고령화가 진척될수록 정부 재정은 나빠진다는 게 선진국의 경험이다. 재정이 나빠지면 세금을 더 걷어서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데, 이는 매우 인기 없는 정책이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몇 개로 좁힐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자나 거액 자산가에 대해서만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방법이다. 일본처럼 조세 저항이 큰 직접세보다 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다. 간접세의 인상은 생활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생활비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본 노인들이 간접세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의료보험료와 같은 복지비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세 역할을 하는 비용 부담도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대량 출산 세대인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아직 후기 고령기에 접어들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58년생들은 이제야 환갑이 됐다. 이들이 후기 고령기에 접어들려면, 아직도 10년가량 남아 있다. 문제는 그때부터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약 20년에 걸쳐 후기 고령기에 접어들게 되므로 의료보험 재정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는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글로벌 분산투자는 선택과목 아닌 필수과목

이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은퇴 파산 리스크이다. 은퇴 파산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다. 연금, 수익성 부동산, 부동산 관련 펀드 등의 자산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상의 리스크를 재무적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이 유일하다. 과거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보장 기간이 70~80세인 상품이 많다. 그러나 평생 동안 쓰는 병원비 중 사망 5년 전부터 70~80%를 쓴다. 만일 보장 기간이 70~80세라면, 자칫 미스 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보험에 신규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부가해서 보장 기간을 후기 고령기까지 확대해놓는 게 필수적이다.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화폐의 가치는 구매력으로 표현된다. 만일 금리 3%라도 물가가 3% 올라버리면, 구매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야만 내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다. 그런데 고민은 투자 자산은 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가 그것이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 장기로 투자하면,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현대 투자 이론의 정설이고, 현실도 정설과 다르지 않다.

절세의 가치는 더욱 올라간다

분산투자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 분산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구성은 70%가 부동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 경우, 외풍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흔히 하는 얘기로 미국이나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 한 가지 자산에 쏠린 구조에서 글로벌 경제가 이상 작동을 하게 되면, 가계의 유동성은 급격하게 나빠진다. 은퇴 시기에는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유동성이 말라 버리면 가계의 현금 흐름이 자칫 최악의 상황에 치달을 수도 있다.

절세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국내 주식도 보유 규모가 커지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주식은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가 되므로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순기능도 있다.

고령화가 진척되고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절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세금은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고 정책의 문제이다. 부유층에 대한 직접세를 높이는 간접세를 높이든, 장기적으로 정부는 세금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금 인하 카드를 꺼낼 때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은 많이 떨어진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인상이라는 상황을 가정해놓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놓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이 될 것이다. 당연히 절세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당연히 절세 상품의 가치도 올라간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자산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비과세 해외 펀드, 변액보험, 노란우산공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 가능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 당사는 이 금융 투자 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 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 온라인 0.3%(미국 0.25%), 오프라인 0.5% 등(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례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실제 절세 효과는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개혁이 유통업의 종말을 막을 수 있을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통업의 종말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이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업에 자리를 빼앗긴 탓이다.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법인세 인하 법안이 유통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과연 유통업의 부활은 가능할까?



글 _ 이승우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수석매니저
seungwoo.lee.a@miraeeasset.com



사회현상화하는 유통업의 종말

‘유통업의 종말(Retail Apocalypse)’은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등재되어 있는 표현이다. 조금은 무시무시한 느낌의 이 표현은 유통산업이 겪고 있는 불황과 위기를 상징한다. ‘Retail Apocalypse’가 위키피디아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유통업의 위기가 해당 산업에만 영향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ICSC(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 약 6,800개의 유통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점한 곳은 3,000여 개에 불과하다. 폐점 수가 개점의 2배를 넘는다. 일단 유통업의 종말이라는 표현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숫자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백화점업체인 J.C.페니컴퍼니(J.C. Penney Company, Inc.)가 지난해 초 138개 점포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고 메이시스(Macy's) 백화점 역시 68개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게임 기기 유통업체 게임스톱(GameStop)은 150개 점포를 닫기로 했으며 전자 제품 유통사인 라디오셱(RadioShack)은 지난해 3월 두 번째 파산 신청을 하면서 500개 넘는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또 약국 체인인 비타민월드(Vitamin World)와 기능성 스포츠웨어 브랜드 언더아머(Under Armour)도 각각 50개의 점포를 줄이기로 했다. 유통 품목이나 유통 주체의 사이즈 차이만 있을 뿐 유통산업 전반에서 목격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유통산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근자의 일일까? 시계열을 좀 더 길게 해서 살펴보자.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유통산업의 파산이 미국 내 전체 파산에서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유통업(자유 소매업+필수 소매업+필수 유통업)의 파산 규모가 근소한 격차로 에너지(석유+가스+석탄) 관련 업종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유통업의 위기가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왔음을 의미한다.

쇼핑도, 노는 것도 모두 온라인으로 한다
이것이 오프라인 유통업 위기의 본질이다

얼마 전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 할 수 있는 광군제의 쇼핑 관련 뉴스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알리바바의 매출액이 광군제 당일 단 28초 만에 1조원을 달성했고, 하루 동안에는 총 28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멀리까지 차를 몰고 가서 잔뜩 짐을 싣고 오던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쇼핑뿐 아니라 노는 것도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다.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완구 유통사인 토이저러스Toysrus의 파산은 오프라인 유통업이라는 한계에 온라인 놀이 문화의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래저래 유통업 위기의 원인은 온라인으로 귀결된다.

법인세 인하가 Retail Apocalypse를
Retail Paradise로 바꿀 수 있나?

물론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유통업체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지금의 Retail Apocalypse를 Retail Paradise로 바꿔놓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미국 의회는 법인세를 기존의 35%에서 20%로 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 유통업종의 법인세율은 약 35% 수준이다.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세율이다. 이 때문에 시장은 유통업이 법인세 인하의 수혜 업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가 위기에 빠진 오프라인 유통업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는 ‘지금의 유통업 종말이 법인세 때문인가’라는 반문하면 금세 답을 얻을 수 있다. 유통업의 위기는 높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온라인의 등장과 소비 행태의 변화가 그 원인이다. 법인세 인하가 유통산업에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이라고 봐야 한다.



알리바바의 매출액이 광군제 당일 단 28초 만에 1조원을 달성했고, 하루 동안에는 총 28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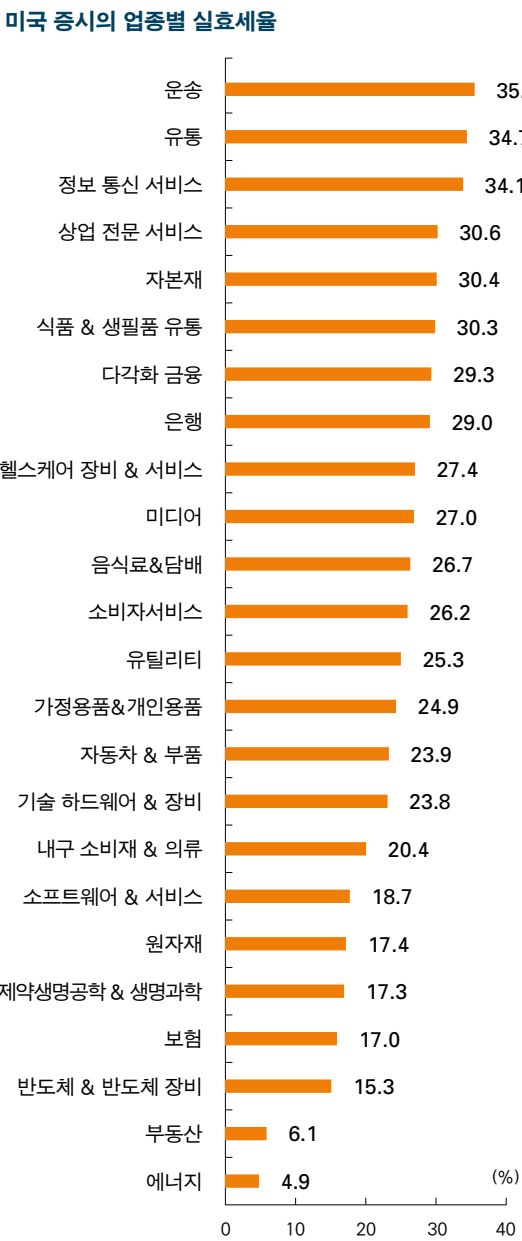
앞으로 수년, 아니 수십 년 이상
Retail Apocalypse라는 표현을 듣게 될지도

최근 들어 온라인 기업들이 오프라인 영역으로 진출하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아마존의 홀푸드마켓 인수나 알리바바의 슈퍼마켓 사례 등이다. 이를 두고 오프라인 유통업의 위기가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 역시 성급한 해석으로 보인다.

전체 소비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 초반(미국 기준)이다. 소비 시장의 90% 가까이는 아직도 오프라인의 영역에 있다. 그동안 온라인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척할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최근 온라인 유통기업이 오프라인 영역으로 진출하는 움직임은 신속 배송 등 온·오프라인의 시너지 창출이나 오프라인 영역의 온라인화를 가속화할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대로 90%의 오프라인 유통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역공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거대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온라인 비즈니스 진출 작업에 분주하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미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승자 독식의 시장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곳에서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온라인 부문 역공이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년, 아니 수십 년 이상 Retail Apocalypse라는 표현을 계속 듣게 될지 모른다. 예전처럼 짓고 열면 손님이 알아서 찾아오는 오프라인 유통업의 시대는 분명 지났다. 유통산업에 대한 접근은 오프라인에서는 복합몰 형태의 유통점 정도로 국한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핵심 온라인 기업 중심의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다.■



자료 : 블룸버그,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주 : FY2016 세월에 지난 11월 말 기업별 시가총액 가중 방식 적용

● 본 조사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금융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마존, 무한 영토 확장의 비밀은 플랫폼

1995년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현재 e커머스 (amazon.com)^①, e북(Kindle)^②,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AWS, Amazon Web Services)^③ 분야에서 전 세계 1위이며,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④ 4위이다.

① 슈타티스타(2016년 기준)

② 오서 어닝스(2017년 2월 기준)

③ 가트너(2016년 기준)

④ 블룸버그(2017년 12월 말 기준)



글 _ 한요섭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수석매니저
yoseop.han@miraeasset.com



아마존의 변하지 않는 세 가지 가치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2007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는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아마존 사업에서 장기적으로 변하지 않을 가치는 다양한 선택^{Selection}, 낮은 가격^{Low Prices}, 빠른 배송^{Fast Delivery}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외면하지 않는다.”

선순환 고리의 시작은 고객 집착

상기한 아마존의 세 가치는 ‘고객 집착^{Customer Obsession}’이라고 명명한 고객 최우선 주의의 기반이 된다. “고객에서부터 시작하라. 나머지는 그다음이다^{Start with the customer and work backwards}”라는 문구는 아마존의 우선순위를 잘 설명해준다.

이러한 고객 중심 원칙 속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라임 멤버십^{Prime Membership}’이다. 매월 10.99달러를 내거나 1년에 한 번 99달러를 회비로 내면 5,000만 개 이상의 물품을 이틀 내에 무료로 배송해준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성장 모델



5,000개 이상의 도시에서는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 ‘아마존 키Amazon Key In-Home Kit’를 설치하면 부재중에도 집 안까지 물품을 배송해주기 때문에 주문한 물건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

프라임 멤버들의 물건 구입을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2015년 3월 출시한 ‘대시 버튼Dash Button’은 가정용품, 스낵과 식음료, 동물용품, 건강식품, 아기용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켈빈 클라인Calvin Klein 속옷까지 버튼 하나로 주문할 수 있다. 대시 버튼을 처음 구매할 때 4.99달러를 내야 하지만, 버튼을 사용해 첫 주문을 하면 이 금액만큼 아마존 크레디트를 받게 되므로, 실제로는 대시 버튼 구매 비용이 없는 셈이다.



쇼핑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디바이스인 ‘대시 완드Amazon Dash Wand’도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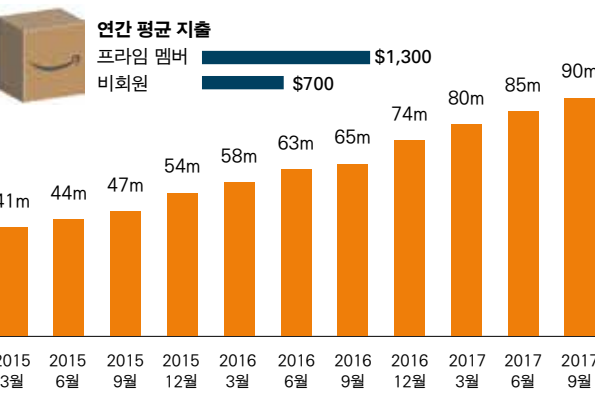
마이크와 바코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어 사용자가 음성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이야기하거나 물건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주문이 들어가는 스마트 기기이다.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냉장고에 붙여놓거나 고리를 이용해 걸어도 좋다. 아마존 대시 완드도 사실상 무료라고 할 수 있다. 20달러를 내고 대시 완드를 구매하면 20달러의 아마존 크레디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라임 멤버는 아마존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포함한 영화와 TV 쇼를 시청할 수 있는 ‘프라임 비디오Prime Video’와 킨들Kindle 앱을 통한 무제한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리딩Prime Reading’, 200만 개 이상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뮤직Prime Music’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6월에는 프라임 회원에 한해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를 구매 전에 미리 입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료로 반품할 수 있는 ‘프라임 워드로브Prime Wardrobe’서비스도 선보였다. 번거롭게 매장에 가지 않고도 의류 여러 벌을 주문한 뒤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만 결제된다. 물건을 많이 구매할수록 제공하는 할인율도 높아지는데, 3~4개 이상 구매 시 10%, 5개 이상 구매 시 20% 이상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아마존의 고객 만족 극대화 노력은 프라임 멤버의 충성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멤버 수도 급증시킨다. 2017년 9월 말 기준 미국 내 프라임 멤버는 9,000만 명인데, 2년 전에 비해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의 연평균 구매 금액은 비회원보다 600달러 많은 1,300달러에 이른다.

2년 만에 프라임 멤버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아마존



자료 : 컨슈머 인텔리전스 리서치 파트너스

기존 물류 플랫폼과 결합한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



2014년 11월, ‘알렉사Alexa’라는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가 탑재된 스피커 ‘아마존 에코Amazon Echo’를 최초로 출

시함으로써 음성인식을 통한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선도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장 먼저 현실화했다.

음악을 듣거나 뉴스, 스포츠, 날씨 등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음성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마트 홈 기능을 가진 제품과 연결하여 집 안의 전등, TV 등을 음성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으며, 음성으로 쇼핑도 가능하다. 인공지능과 전자상거래라는 거대한 두 개의 플랫폼을 연결해 시너지를 창출한 아마존의 차별화가 돋보인다.

알렉사는 외부 개발자들에 의해 그 기능이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데, 2017년 9월 기준으로 2만5,000개 이상의 기능(이를 Alexa Skills라고 부름)이 작동되고 있다. 애플이 직접 앱을 개발하는 대신 ‘앱스토어App Store’라는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아이폰 생태계를 더 크게 성장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알렉사 플랫폼을 개방하여 기업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가져야 할 두 가지 필수 조건인 ‘기능성’과 ‘확장성’을 모두 겸비하게 되었으며, 2017년 초에 열린 CES 2017에서는 알렉사를 탑재한 LG전자의 냉장고, 포드 자동차, 월풀 세탁기 등 여러 업체의 다양한 기기를 선보이기도 하는 등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다.

물류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으로

무한 영토 확장

2015년 11월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첫 오프라인 서점 ‘아마존 북스Amazon Books’를 오픈한 데 이어, 2016년 12월에는 센서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초의 계산대 없는 유통 채널 ‘아마존 고Amazon Go’를 선보였다.

2017년 8월에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 460여 개의 매장을 가진 유기농 신선 식품 유통업체 ‘홀 푸드 마켓Whole foods Market’을 137억 달러(15조6,000원)에 인수하면서 전격적으로 식품 시장에 진출하였다. 식품 시장은 온라인화가 덜 된 업종인데 그 이유는 품질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홀 푸드는 품질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유기농 식료품 브랜드라는 장점과 함께 미국 전역에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아마존이 추구하는 O2OOnline to Offline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에 최적의 기업인 셈이다.

최근에는 미국 내 12개 주에서 대형 의약품 도매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약국 면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미국의 처방 약 시장 규모는 연간 5,600억 달러(약 640조원)이다. 또한 미국 헬스케어 IT 서비스업체인 서너Cerner와 헬스케어 부문 제휴를 통해 의료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접목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헬스케어 영역까지 진출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소비 및 지출 관련 모든 데이터(예를 들어 구매 상품, 선호 식품, 선호하는 영화와 음악·도서 장르, 라이프 스타일, 패션, 질병, 복용 약 등)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아마존의 거대한 플랫폼 구축을 통한 선순환 고리를 어느 누구도 쉽게 끊을 수 없는 이유이다.■

● 당사는 이 금융 투자 상품(주식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 투자 상품(주식거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식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1%(국가별 거래 수수료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5G와 4차 산업혁명은 최근 산업 트렌드의 중심이다. 국내외 관련 기업은 물론, 관련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투자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분야의 변화와 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하는 이유다.

5G :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



글 _ 박성용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선임매니저
sungyong.park@miraeeasset.com



5G :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디딤돌

이제는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린 5G. 그런데 막상 5G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5G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28GHz 초고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한다. Hz는 주파수의 단위로 1초 동안 한번의 진동 전파 주파수를 의미한다. 10Hz는 10번 진동한다는 것이고, 28GHz는 280억 번 진동한다는 뜻이다. 즉 5G는 4G(LTE)에 비해 데이터 송수신 과정에서 지연시간이 10분의 1로 짧아지고, 100배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10배 이상 많은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G가 1초에 1Gbps의 통신 속도를 갖는다면 5G는 20Gbps 수준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글로벌 통신사들은 2020년에 5G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5G 주파수를 600MHz, 3.7-4.2GHz, 27.5-28.5GHz로 확정하고 버라이즌은 2018년까지 주요 도시에 5G 서비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AT&T와 스프린트도 5G망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00억 유로를 투자하는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 7년간 1,800억 달러를 5G에 투자하여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5G를 완전 상용화할 계획이다.

5G와 산업 : 경제적 효과를 이끄는 5G

5G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고속,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5G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없이 많은 디바이스를 초지능성 클라우드와 연결하고, 산업별로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분야인 스마트 자동차와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을 실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 통신 기술이 되는 것이다.

아래 도표 ‘5G 관련 산업 기대 효과’에서는 5G와 관련한 산업 분야에서의 효과를 크게 8개 부문으로 나눠 설명한다. 에릭슨-LG 5G 비즈니스 포텐셜 보고서에서는 2026년까지 이러한 서비스의 실제 구현을 통해 약 13조8,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5G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장점이 많다. 다만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수백 메가헤르츠 이상의 광대역폭을 이용하므로 주파수는 도달거리가 짧고, 회절 각도 장애물을 피하면서 발생하는 각도가 낮아 전파 범위가 좁은 단점이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3.5GHz의 저주파수를 활용, 회절성이 생겨 주파수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공급한다. 대용량의 도심 지역은 28GHz로 서비스하고 도심 외 지역은 3.5GHz로 음성·데이터 부분을 지원하여 보충한다.

스몰 셀^{Small Cell}, 소형 기지국 기술과 대용량 다중 안테나 기술MIMO,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도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

5G 관련 산업 기대 효과

자동차	헬스케어	공공 안전	하이테크 산업	유틸리티	인터넷 산업	금융업	미디어 / 게임
실시간 교통정보 활용	삶의 질 향상 기여	안전보장 채널 확보	생산성 및 보안 향상	비용 절감 / 시설 보안	브랜드 충성도 구축	금융거래 활성화	몰입 경험 서비스

자료 : 에릭슨-LG 5G 비즈니스 포텐셜 보고서 2016,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스몰 셀은 10m에서 수 킬로미터 커버리지를 가진 저전력 소형 기지국이다. 5G가 도달거리가 짧은 고주파수 통신이라는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스몰 셀을 통해 5G는 효과적인 트래픽 분산이 가능하며, 통신사 입장에서 5G 설비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5G 관련 이슈 : 주파수 경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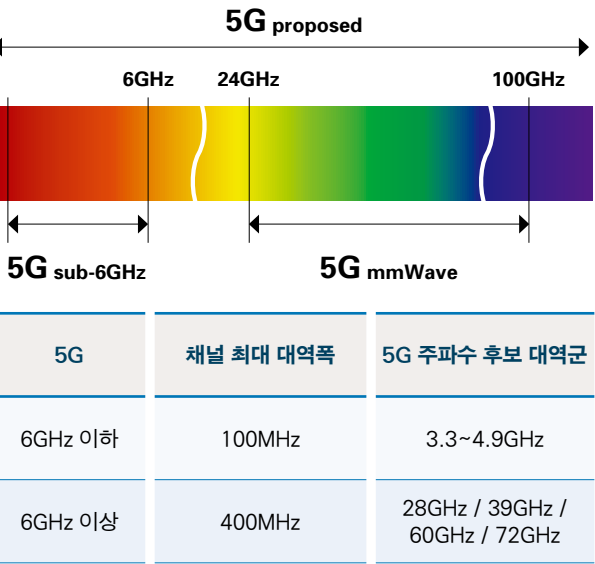
5G의 주파수 경매가 2018년에 있을 예정이다. 국제 민간 표준화 기구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는 5G 주파수 최대 대역폭 표준을 6GHz 이하는 100MHz, 6GHz 이상은 400MHz로 결정한 바 있다. 3GPP는 2018년 6월 5G의 1단계 표준을 설정할 계획인데, 국내에서는 5G용 주파수 경매를 2018년 상반기(3~6월 예상)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8GHz 대역의 1GHz 대역폭이 5G용 주파수 경매에 나올 것인데,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1MHz당 평균 260억원의 경매가가 형성되었음을 기억해보면 약 26조원의 경매시장이 될 수 있다.

다만, 27GHz, 29GHz 대역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면 400MHz 주파수 대역폭 7개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400MHz 주파수 경매에 통신사가 참여할 경우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3GHz 대역폭 기준 최저 할당 가격은 2조~3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이미 5G에 10조원 이상의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5G 관련 기업 : 참여 분야별로 보면 기업이 보인다

5G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다. 대표적 부품으로는 5G용 모뎀 칩이 있다. 5G용 모뎀 칩 기업에는 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해당되며, 이 분야의 강자는 퀄컴이다. 모바일 AP의 강자로서 삼성전자, 인텔 등과 경쟁하고 있다. 한동안 퀄컴은 경쟁자들의 신제품에 밀려나는 듯했으나 다시 강자로서의 위상 회복을 노리고 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845(갤럭시S9 탑재 예상) 공개 행사 이후 5G 통신 규격 6GHz 이하부터 밀리미터파(30~300GHz)까지 전 범위를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퀄컴의 5G용 모뎀 칩 ‘X50’은 5G 주파수 28GHz 중 800MHz 대역에서 5Gbps 속도가 가능하다. 퀄컴은 해당 모뎀 칩을 차이나모바일, ZTE와 함께 서비스할 계획이다. 인텔도 5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XMM 8000 모델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는 엑시노스9810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다(한편 퀄컴은 브로드컴의 적대적 M&A 추진으로 불확실성이 제기됐고, 애플과의 소송전도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5G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과 5G 주파수 대역폭



자료 : SK텔레콤,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기지국 안테나와 스몰 셀 설비, 광섬유 모재도 5G 통신에 필요하다. 국내의 몇몇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5G의 상용화에 앞서 성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주가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물론 5G로 또 한 번의 도약이 가능한 산업은 통신산업이 될 것이다. 미국의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뿐 아니라 국내 3개 통신사의 변화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B2B 수익 모델의 추가가 변화의 동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프라 건설과 전기차를 비롯한 도시 재생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빠르게 동참하기 위해서는 5G의 구현도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반도체와 빅데이터, 융·복합 소재와 지능형 사물인터넷이라는 4대 기반 산업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5G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외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탄탄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이머징 시장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성장스토리와 기회가 존재하는 이머징 시장에 주목해보자.

성장 기회가 있는 이머징 시장에 주목하자



글 _ 전유리 미래에셋대우 상품솔루션팀 선임매니저
your.i.jun@miraeeasset.com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펀드

새해를 맞이하며 2017년을 돌이켜보면 글로벌 증시는 경제성장률과 함께 좋은 흐름을 보였다.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국가별, 종목별로 차별화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축소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이머징 시장은 글로벌 경제가 동반 성장하면서 그 수혜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머징 시장은 국가별로 환경과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다. 또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환율과 같이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해당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상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머징 시장 현지에 리서치 조직을 보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운용사의 상품이 유리하다.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펀드는 이머징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12개 국가에서 113조원(2017년 6월 말 기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지 리서치와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다. 앞서 소개한 펀드는 해외(역외)에서 2009년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모닝스타 종합평가 최고 등급인 5 스타(2017년 11월 30일 기준)를 받기도 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출시되었다.

시장을 대표하는 리딩 기업에 투자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펀드는 국가와 섹터에 상관없이 이머징 시장의 성장 기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철저한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운용하는 기본에 충실한 펀드이다. 펀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표 기업에 투자한다. 현재 업종을 대표하는 리딩 기업과 향후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에 동시에 투자한다. 보통 업종 대표 기업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인다. 대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이머징 시장에 투자할 때 겪을 수 있는 변동성도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은 매우 높은 성장성을 보이며 알파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분산과 집중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펀드는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브라질, 러시아 등 폭넓은 이머징 시장에 분산투자한다. 변동성이 큰 이머징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가별로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이머징 시장을 커버하기 위해 매월 각 지역 전문가들이 투자 위원회를 열어 지역별 비중을 조절한다. 국가별로는 분산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낮추되, 향후 시장을 주도할 테마에는 집중 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주요 투자 테마로는 여행·레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이커머스 등 약 6개가 있다. 특히 여행·레저는 중국과 인도의 해외여행객 수가 급증하며 향후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중국의 해외여행객 수는 2018년 1억명, 2030년에는 약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① 게다가 여행객들의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어 더 주목할 만하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충성도 높은 고객군을 바탕으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 업체가 글로벌 업체에 맞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중이다. 대표적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각각 약 8억 명, 5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게임, 광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②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펀드는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별, 산업별 성장 테마 발굴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성을 추구한다.



대표적 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각각 약 8억 명, 5억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게임, 광고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장은 계속해서 변한다. 구간별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국가와 종목도 바뀌기 마련이다. 단기적 트렌드를 좇기보다는 좋은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머징 시장 내 현지 리서치를 바탕으로 투자기회를 발굴해내는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펀드는 이러한 투자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다. 이머징 시장의 높은 성장성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다. ■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구분	종류 A
투자위험 등급	2등급(고위험)
선취 판매 수수료	종류 A : 1.0% 이내
총보수	종류 A : 연 1.00%(운용 연 0.30%, 판매 연 0.65%, 신탁 연 0.03%, 사무 수탁 연 0.0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2.07% 추정) 등 추가 비용 발생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 방법 (17시 경과 후)	제4(5) 영업일 기준가로 제9(10) 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후)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상기 본문 표에서 확인가능)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수수료 외에 증권거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21기 해외 교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진행

글로벌 인재 육성 위해 전 세계 45개국, 누적 인원 4,517명 지원



지난해 11월 27일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21기 해외 교환장학생 250명을 선발하여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해외 교환장학생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넓은 세계에서 지식을 함양하고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사회 공헌 사업이다. 2007년부터 매년 2회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발된 250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4,517명의 대학생이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 45개국으로 파견됐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교환 장학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같은 국가로 파견되는 조원들끼리 이를 공유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21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황슬기 학생은 “어린 시절 교육에는 장벽이 없다고 배웠지만, 커갈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며 좌절한 적도 있다”며, “미래에셋 장학금을 통해 그 장벽에 도전할 수 있었고 더욱 투자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2000년 재단 설립 후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다’란 기치 아래 해외 교환장학생을 비롯하여 국내 장학생 4,267명, 글로벌 투자 전문가 장학생 122명을 포함해 총 7,893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경제 및 진로 교육, 상해 글로벌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포함해 17년간 누적 참가자 수는 20만 명(20만1,894명)에 육박한다.

어드바이저리

66 절세 가이드 임대주택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

68 부동산 솔루션 금리 인상기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

70 법률 클리닉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Advisory



임대주택 등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글 _ 손광해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세무사
kwanghae.son@miraeasset.com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계속해서 주택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그럼 이번에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과 확대

지금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요건에 맞는다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고 2018년 말 일몰 예정이었다. 재산세의 감면은 2호 이상을 임대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감면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 주택(전용면적 40m² 이하)에 대해서는 1호만 임대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다가구주택(각 가구의 전용면적 40m²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 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소득세의 부담 완화

현재는 기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부부 합산)이거나 주택 임대 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비과세는 2018년까지만 적용되고 2019년부터는 과세하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분리과세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시에는 필요경비율 70% 적용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50%를 적용하여 차등을 두기로 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도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3호 이상 임대 시 소득세 감면(4년 30%, 8년 75%)을 받을 수 있었는데 1호 이상 이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

임대 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 내용 요약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2018년 → 2021년)
	40m ² 이하 소형 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 기준 폐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 가구당 40m ² 이하
소득세 감면 확대	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 2019년부터 과세 시행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등록 70%, 미등록 50%)
양도세 감면 확대	준공공 임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8년 50% → 70%)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축소(5년 임대 시 → 8년 임대 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등록 임대 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 (4년 임대 : 40%, 8년 임대 : 80%)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및 감면 확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 강화

지난해 8월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2018년 4월 이후 다주택자의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세율을 중과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도 중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장기 임대 주택이라 함은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준공공 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세율 중과는 2018년 4월 이후 시행하므로 현재 이미 주택 임대 사업자로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2018년 3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간 임대 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준공공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8년간 임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2018년 3월 이전에 꼭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도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 시 70%를 적용받았지만 2018년 4월 이후에는 8년 임대 시에도 70%를 적용받도록 확대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재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간 임대하는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합산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4월 이후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준공공 임대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적용받고 싶다면 2018년 3월 이전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세금 외에도 2020년까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4년 40%, 8년 80%).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인 준공공 임대주택에 집중되어 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향후 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과 혜택을 고려하여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금리 인상기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



글 _ 허혁재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부동산컨설턴트
hjhur@miraeasset.com

한국은행이 2017년 11월 30일에 기준 금리를 1.25%에서 1.5%로 0.25% 포인트 올리며 6년 5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향후에도 점진적 금리 인상이 예상돼 저금리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시기다.

저금리 영향으로 수익형 부동산 가격 최근 급등

최근 수익형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효과였다.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는 순영업소득과 자본환원률에 의해 결정된다. 분자인 순영업소득, 즉 수익형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많을수록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 반대로 분모인 자본환원률, 즉 시장 기대 수익률은 낮을수록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다. 저금리로 이 시장 기대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최근에 수익형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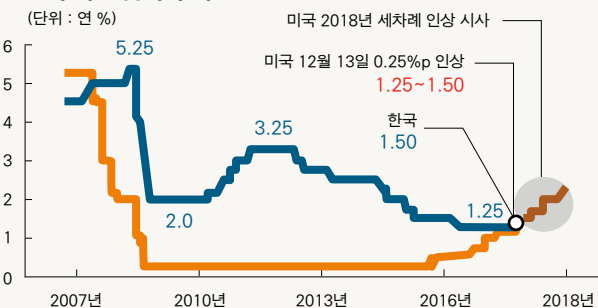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

시장가치 (Value)	=	순영업소득(NOI) / 자본환원률(Cap. Rate)
-----------------	---	-------------------------------

금리 인상 전의 최근 기준 금리 동향을 보면 ‘한미 기준 금리 추이’ 그래프와 같이 2012년 6월 3.25%였던 기준 금리가 2016년 6월 1.25%까지 4년 만에 2% 포인트 떨어졌다. 수익형 부동산의 시장 기대 수익률은 입지·종류·규모·운용형태 등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기준 금리보다 2~3% 포인트 높게 형성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2012년 6월 6.0% 수준에 거래되던 물건들이 최근에는 4.0% 내외에 주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 낮은 수익률에도 거래된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가격에도 매매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 1,000만원(연간 임대료 1억2,000만원)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2012년 6.0%에 시장에서 거래됐다면, 이 부동산의 당시 가치는 20억원(1억2,000만원/20억원=6.0%)이다. 이후 5년 동안 임대료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도 2017년에는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4.0%에 거래가 된다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30억원(1억2,000만원/30억원=4.0%)이다. 임대료 인상 없이도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5년 동안 무려 50% 상승한 것이다. 이만큼 금리가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미 기준 금리 추이



기대 수익률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

연간 임대료 (만원)	기대 수익률	물건 가격 (보증금 제외)	가격 상승률
12,000	6.0%	200,000	-
12,000	5.0%	240,000	20.0%
12,000	4.0%	300,000	50.0%

좋은 물건 잘 나오지 않고, 고가 매입 리스크 커져

현 수익률이 낮더라도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큰 안정성 높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긍정적으로 매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고, 수익형 부동산 물건을 찾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서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은 물건을 시장에 잘 내놓지 않고 있다. 그냥 갖고만 있어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임대료도 꼬박꼬박 나와 급할 게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 팔아도 양도세 부담이 큰데, 이 물건을 팔고 다른 곳에 마땅히 투자할 만한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럴 때가 투자자가, 즉 꼬마 빌딩·중소형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매수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때다. 좋은 물건이 없다고 상권 형성도 되어 있지 않고 되기도 어려운 곳의 물건을 비싸게 사거나, 높은 수익률을 좇아 공실 리스크가 높고 관리하기도 힘든 물건을 매입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시, 가격 하락 리스크 커지는 반면 우량 물건 살 수 있는 기회

공실 리스크가 크거나 임대료 인상 가능성이 낮은 수익형 부동산 물건을 갖고 있는 건물주라면, 본격적인 금리 인상 전에 좋은 가격에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시기다. 반면 매수자라면 고가에 매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금리 인상의 본격화와 이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 가격의 하락(기대 수익률 상승)이 진행된다면, 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좋은 입지의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가 공실 리스크 적고,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수익형 부동산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물건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투자를 결정할 만하다. ■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글 _ 박현진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변호사
hyunjin.park@miraeeasset.com

보통 이혼은 부부 관계가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때 생각한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원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거나 합의에 따른 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이들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동거하면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곤 한다. 이 같은 이혼을 ‘이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다른 목적에 의한 이혼

보통의 경우 더 이상 같은 생활공간에서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지 않기 위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한다. 그런데 법률상 이혼 신고를 하고도 그전과 다름없이 계속 동거하면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 같은 종류의 이혼에는 ‘재산 분할’이라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른 목적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법률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 같은 유형의 이혼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법률상 부부 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다른 목적에 의해 이혼한 후 실질적 혼인 생활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혼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일단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경우에 진정한 이혼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한 이혼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채무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한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혼하는 경우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줌으로써 자신의 채권자가 재산을 추심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상당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라면 더욱이 이와 같은 ‘법률상 이혼’을 선택한다. 법률상 이혼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재산 분할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 하에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 과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채권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재산 분할로 양도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녀와의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자 법률상 이혼을 선택한다면?

또한 최근에는 자녀와의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법률상 이혼’이 종종 이루어진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자녀의 1.5배에 불과하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물론 유언을 남기거나 사전 증여로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넘겨줄 수도 있지만 이때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배우자의 공헌이 큰 경우 기여분을 주장한다 해도 그 또한 인정될지는 미지수이며, 자녀들이 부인한다면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자녀들과 분쟁을 치러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절반 정도가 그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혼을 통해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은 어찌 보면 더 간단하고 분쟁의 소지가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망 직전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한 결과 증여세나 상속세가 줄었다면?

한편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근 사망 직전 법률상 이혼을 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한 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한 사례가 문제되었는데 세무서가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이혼 후에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소위 ‘가장 이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칙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그 재산 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증여세 등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초과 부분에 한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법률상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혼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혼 시에 이루어지는 재산 분할 또한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그로 인해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거나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단,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재산 분할인 경우 등은 제외).

즉 혼인이나 이혼과 같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시되는 법률행위는 그 당사자의 의사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를 부인하기 어렵다. ■

‘2017 문화기행(文化紀行)·풍류예찬’ 개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방 주요 도시 8개 지역 VIP고객을 대상으로 ‘2017년 문화기행·풍류예찬’을 진행했다. 2015년부터 진행된 문화기행은 매 회마다 의미 있고 내실 있는 콘텐츠로 많은 고객에게 사랑 받아온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번 문화기행은 지역별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춘천, 포항, 진주, 목포에서는 송동훈 문명 탐험가가 ‘배움, 영혼, 상상의 여행 그랜드 투어’, 거제에서는 이주현 미술평론가가 ‘행복한 명화 읽기’라는 주제로, 또한 청주와 여수에서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음식 쾌락은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우리나라 제1호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은 인간의 5미^ㅅ인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감칠맛에 관한 숨은 이야기와 우리가 즐겨 먹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음식들의 비밀을 고객들에게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고객은 “이번 강연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도 얻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클래식 공연 풍류예찬 ‘해설과 함께 하는 갈라 콘서트’를 진행해 품격 있는 공연을 선보였다. 미래에셋대우는 앞으로도 소중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오블리제 클럽 자유 작품 공모전 당선작 갤러리

Gallery

주제

2017년 행복했던 순간

‘우수작’ 당선을 축하합니다!

동대전WM 권길자 고객
제천WM 이희태 고객
IWC대구 민병도 고객
평촌WM 박명수 고객
부산WM 이기영 고객
방이역WM 이정민 고객
제천WM 이희태 고객
교대역WM 임충규 고객
개봉동WM 최기훈 고객

● 김경자 고객의 작품은 표지와 첫 페이지에 실렸습니다.

- 우수작 당선 고객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가작 당선 고객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본 갤러리의 작품 중 일부는 수정·보완되었음을 알립니다.
- 당선 고객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기재했습니다.

**IWC대구 민병도 고객**

2017년 초 참수리와 흰꼬리수리를 가까이서 촬영할 수 있는 일본 홋카이도 겨울 바다에 동호인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날씨가 좋아서 유빙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함께 참수리가 비상하는 순간을 촬영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진사(사진작가 별칭)들에게 이런 대박은 흔하지 않은 일이지요. 그 기를 받아 금년 한 해 무탈하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가족 여러분도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대전WM 권길자 고객**

어느 날 제라늄이 핀 친구네 집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가로 스치는 풍경을 보는 것이 내게 행복감을 가져다주었다. 큰 정원의 흐드러진 꽃도 아름답지만, 소박하고 몇 송이 피지 않은 제라늄도 내게 기쁨을 주기엔 충분한 것 같다.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지….

**제천WM 이희태 고객**

2017년 10월 27일 회갑 기념 여행 차 뉴질랜드 남섬 퀸스타운에 갔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봄 날씨에 감탄하고 있을 무렵, 가이드가 “조상 5대(代)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는 날씨”라고 하더군요. 소중한 그 순간을 우리 미래에셋대우 가족과 공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촌WM 박명수 고객**

2017 시카고 마라톤 대회 12km 지점 통과 모습.
시카고 시내를 이리저리 달리는 코스도 인상적이었지만 시민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좋은 기록(3시간 37분)으로 폴코스를 108회 완주한 추억은 영원히 남겠지요.

**방이역WM 이정민 고객**

여름방학에 그랜드캐니언에 가서 콜로라도강의 일몰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2017년 한 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봉동WM 최기훈 고객**역설적 어머니 사랑**

역설(逆說)이란 말은 철학 용어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사랑을 고상한 철학 용어로 포장하려는 게 아니다. 그저 이렇게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려는 순전한 마음에서다.

지난봄 장모님을 여의고 올해 연세 여든다섯이신 어머니께 매일 전화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날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절박함이기도 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9시 무렵이면 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여간 반가워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 또 전화를 하면, “어제 했는데 또 전화를 했구나?” 하면서도 싫은 기색은 결코 아니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 시각을 이 무렵으로 정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 시간이 어머니가 여유를 찾는 시간이지 싶었다. 조금 더 늦으면 주무실 시간이 임박하고 그 이전에는 해가 긴 여름날이면 늦게까지 밖에서 일하실 때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일손을 거두고 저녁밥을 드신 다음 잠시 텔레비전이라도 보는 그때가 적당하다고 여긴 것이다. 사실 어머니께 전화하는 일은 의무감이 앞서 있었다.

그러다가 주말이면 서울에 다녀오고 무슨 일에서인지 한 이틀 전화를 못 드린 날이 있었다. 아차, 하고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는 대뜸 네 전화가 없어서 궁금했다고 그러셨다. 어머니께 구차한 변명을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죄송해요” 이 한마디면 모든 게 용납되는 어머니의 넓고 따뜻한 품이니까.

고향에 다녀왔다. 변변한 여름휴가도 즐기지 못한 채 올해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해진 연가 일수 가운데 고작 3분의 1만 소일했다. 이참에 고향 부모님 곁에서 한 나흘 머물리라 마음먹었다. 가을걷이도 끝나고 그다지 할 일은 없었지만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었다. 그사이 조부 추도 예배도 인도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헤아려보니 100명쯤 되는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였다.

부모 공경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다. 모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필하지 않고 친히 직접 쓰신 성경은 십계명이다. 그중에서도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이 말씀이 나는 두렵다. 물론 의무감이 앞선 효도는 진정한 효도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크리스천은 이 계명을 첫 마음에 두어야 한다. 부모님께 효도를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되며 나아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효자인 척하는 내 외식(外飾)이 드러난 듯하다. 그렇기에 나는 다시금 속다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되 말(글)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효도는 전화라도 자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그리운 어머니입니다.

부산WM 이기영 고객

남편과 단둘이 떠난 유럽 배낭여행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65세를 넘어 곧 70세를 맞이할 나이가 되니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들썩이는 분위기와 달리 출기만 하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섭섭함과 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의 황금연휴를 생각하니 아직 사그라들지 않은 작은 불씨 같은 젊음의 기운이 남아 있는 것 같아 미소가 지어지면서 행복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는가 봅니다.

천주교 신자인 저는 예전부터 프랑스의 루르드와 포르투갈 파티마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 항상 아쉬워했는데 올해 추석 연휴 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네 살인 손녀딸을 맡아 기르면서 가까운 여행은 물론이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쉽게 가지지 못했는데 남편과 딸의 적극적인 권유로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건강과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장거리 여행이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늙으면 다녀올 수 없다는 생각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50대 초·중반이었던 15년 전쯤 남편과 둘이서 한 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한 기억이 떠올라 자유 여행으로 남편과 둘이서 프랑스의 루르드와 포르투갈 파티마 그리고 스페인 그라나다와 바르셀로나에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표 검색과 호텔 그리고 이동 노선을 정하느라 남편과 딸이 머리를 맞대고 몇 달을 애를 먹었고 저는 손가락을 얹기만 한 기분이라 미안했지만 손녀딸 뒤따라 다니며 먹이고 치우느라 어쩔 수 없었네요.

17년 9월 30일 김해국제 공항을 출발해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여 근처 호텔에서 하루 쉬고 핀에어를 이용하여 헬싱키에서 환승한 후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비행기와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고 프랑스의 루르드에 당도했을때 그 느낌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곳에 도착한 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기분이었답니다.

이동시간이 길어 너무 피곤하고 지쳤지만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수시로 변하는 바깥 풍경을 즐기며, 못 알아듣는 프랑스어를 노랫소리 삼아 즐거운 마음이 넘쳐흘렀습니다.

루르드는 마사비엘동굴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으로 유명합니다. 맑고 차가운 공기는 정신을 일깨워줬고, 아름다운 산과 강을 보니 한없이 마음이 편안했으며, 행복해 보이는 많은 순례자들과 눈이 마주치면 살짝 웃어보기도 하고, 부탁하지 않아도 사진을 찍어준다는 친절에 몸 둘 바를 몰랐고, 곳곳에 펼쳐진 아름다운 성당에서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미사를 함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의 시간이 너무도 부족했지만 알차게 잘 보내고 포르투갈의 파티마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을 잘못 타고 버스를 놓치는 실수를 했지만 덕분에 택시를 타고 리스본을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제로니무스 수도원의 웅장함에 깜짝 놀랐고, 수도원 옆 유명한 에그타르트의 따뜻하고 폭신평신했던 맛에 더 놀랐습니다.

하루의 입장객이 정해진 스페인의 그라나다 알람브라궁전은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한 이슬람 문화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엿볼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라나다 현지의 한국인 민박집 주인장님의 추천으로 생각지도 못한 열정적인 플라멩코 팀의 공연을 관람하고 산니콜라스 전망대에서 알람브라 야경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서서히 지쳐갈 때쯤 일부러 한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서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먹었더니 다시 생기가 돌았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마드리드 in 바르셀로나 out으로 비행기 표를 끊었기에 바르셀로나도 살짝 맛보고 왔습니다.

산악 열차를 타고 가우디가 영감을 받은 바르셀로나 인근의 몬세라토를 다녀와서 가우디의 대표적인 작품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성당)와 카사 바트요에 들르니 감회가 남달랐네요.

집으로 돌아오기 마지막 날엔 카탈루냐 음악당에서 클래식 기타 연주도 감상해보았습니다. 물론 너무 피곤해서 음악을 들으며 꾸벅꾸벅 졸기도 했고, 기차가 연착이 되어서 만나질 일정이 홀라당 날아가버리기도 했으며, 체력적으로 힘들 때는 남편과 토닥토닥하기도 했고.

한국에서 빵순이로 알려진 제가 유럽에서 빵이 지겨워 간절하게 밥을 찾아다닌 기억, 유럽의 소매치기를 조심한다고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며 신경이 곤두선 기억, 바르셀로나 지하철 안, 바로 제 코앞에서 제 가방의 지퍼를 열다가 딱 걸린 소매치기 총각과 짧은 시간 나눈 눈빛 교환은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여행의 추억이네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의지할 곳 없는 타지에서 아프지나 않을까, 별 탈 없이 잘 다녀와야 할 텐데 하는 걱정으로 준비했는데,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정말 내가 그곳에 다녀온 게 진짜인가, 꿈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들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그때를 기록하는 지금 이 순간도 정말 행복하네요. 행복한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대역WM 임충규 고객

깜짝 선물! “해피 버스테이…”

나이가 들어도 여행은 늘 마음을 달뜨게 한다.

자연의 품속으로, 도시의 낭만을 그리며, 다정하게 건네는 인사말 ‘알로하’의 섬 하와이로 떠났다.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을 예약한 터였다.

선상에서, 바다 위에 빛을 드리운 황홀한 해님을 배웅하며 육·해·공 재료로 푸짐하게 즐기는 만찬^{晩餐}, 현란한 춤과 레크리에이션, 저편 해안 도시에서 뿜어내는 찬란한 별빛 같은 광란의 불꽃놀이를 일컬어 ‘크루즈 섀넌 디너파티’라고 했다.

태평양의 혼혼한 간들바람이 선창가를 넘나들며, 홀 안 가득한 관광객을 살포시 보듬으며 상큼함을 선사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남녀 2인조 악사의 우쿨렐레 반주에 따라 박수 치며 합창한 “해피 버스테이 투 유~”로 인해 홀 안은 축하의 열기로 가득했다. ‘투유~’의 주인공은 바로 ‘미Me’, 손님들 앞에 불러나가 선 ‘나’였다. “오늘은 한국서 온 미스터 림의 생일!!”이라는 리더 악사의 힘찬 아나운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크루즈 ‘스타 오브 호놀룰루’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폴리네시아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홀 안이 꽉 찼다. “해피 버스테이 투 유~”는 거푸 불려졌고, (홀 안에선 영어로) “몇 살이냐?”, “젊다!”, “축하한다!”며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로 진한 축하를 해줬다.

크루즈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은 사람이 흔치는 않을 것이다. 나는 영광된 이 순간에 감격 했고, 홀 안 손님과 악사에게 연신 감사와 기쁨의 인사를 건넸다.

어느새 이글거리던 태양은 수평선에 걸린 흰 몽게구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며 반짝이는 샛노란 물비늘은 분주했던 호놀룰루의 하루를 위로하며 시나브로 풍당! 잠겨버렸다.

하와이 여정^{旅程}은 큰아들 부부의 배려였다. 우리 내외를 위한 효도 관광이라고나 할까. 나는 올해 77세다. 한자 표현으로는 희수^{喜壽}(‘喜’자를 초서 세로쓰기를 하면 七十七이란 데서 유래)다.

해 질 무렵, 크루즈 선상에서 두툼한 스테이크와 해산물, 열대 과일, 와인 등으로 푸짐한 저녁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만찬을 서빙하는 예쁜 웨이트리스에게 웃으며 “투데이 이즈 마이 버스테이(3월 10일)”라고 말을 건넸다. 그녀가 이 사실을 리더 악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어진 날렵한 무희들의 훌라춤과 격렬한 몸놀림에 해학이 담긴 탈춤 등 폴리네시아 특유의 ‘몸 노래’를 여럿 감상할 수 있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다양한 미니 매스게임이 펼쳐졌다. YMCA 노래에, 등 돌린 상대방의 양 어깨를 잡고 달리는 ‘S’자 모양의 기차놀이 등 리듬에 맞춰 한바탕 야단스럽게 여흥을 즐겼다. 모든 것이 내 생일을 축하해주는 것이겠거니 착각하며 속으론 흐뭇했다.

예로부터 생일은 ‘귀빠진 날’이라고 했다. 산고^{産苦}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출생 후 백일^{百日}은 변고 없이 잘 지났다고 해서 백설기와 수수떡과 미역국으로, 첫돌은 떡과 신타래 등 돌잡이용품으로 아기의 장래 성공과 무병장수를 희원^{希願}했다. 또 생일에는 꽃나무나 유실수를 심어 기념하기도 했다.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이례를 굶는다’는 속담도 있다. 생활이 팍팍했던 시절 푸짐한 상차림에 대한 기대가 컸겠지만, 막연한 기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경계의 뜻이 강했다.

나는 20~30세 초반까지 생일은 잊고 살았다. 충주 본가를 떠나 서울에서 공부하고, 군에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기였기에…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집에 없는 아들이 행여 굶을세라 내 생일이면 어김없이 이밥에 미역국 끓여놓으며 치성^{致誠}을 다하셨다.

우리 세대는 일본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 4·19, 5·16혁명, 근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몸으로 겪었다. 특히 ‘잘살아보자’던 산업화의 역군인 세대다. 내 나이를 이만큼이나마 누려왔다는 것은 행운이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남은 인생은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멋지게 사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이후 나는 세 가지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일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이 그것이다. 돈 버는 일만이 일은 아닐진대 일거릴 찾아서 하고, 여러 가지 읽고 쓰면서 양식을 쌓고, 가벼운 몸놀림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다.

습관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지 않나. 건강은 반드시 따라오리라 믿는다.

저만치 보이는 낭만의 와이키키 해변에서 밤하늘에 작열하는 불꽃놀이의 ‘안녕!’으로 크루즈에서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 남산 같은 탄탈루스^{Tantalus} 언덕에 올랐다. ‘편치 볼’에 살포시 감싸인 호놀룰루 시내에는 유난히 휘황한 불빛만을 깜깜한 밤하늘에 스포트라이트처럼 드러냈다. 마침 은빛 찬란한 커다란 보름달이 중천에 걸려 있기에 하와이에 왔으니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는 것 같아 앞서 세 가지 바람을 소원하였더니 햇님처럼 반기는 듯했다.

생텍쥐페리는 “행복한 여행의 가장 큰 준비물은 가벼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 막내아들과 함께한 7일간의 휘게리^{Hyggelig}한 하와이 여정은 즐거운 드라마처럼 끝났다.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편 주먹 권 손등을 상대를 향해 도리질하듯 흔들며) Aloha~, 하와이!!

**목포WM 고명운 고객****따스한 봄날을 기리며**

2017년에도 어김없이 목포 입암산에는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벚꽃동산이지만 올 때마다 새롭고, 따뜻한 봄기운에 눈이 시리도록 하얀 꽃망울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덧 화려했던 꽃은 지고 흔적은 사그라들었지만 곧 다시 찾아올 봄을 기다리며 이 겨울을 납니다.

**홍제동WM 홍유경 고객****통영에서 바라본 노을**

제게 2017년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전시나 공연 등 새로운 시선을 담은 작품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2018년 트렌드 중 하나인 소확행(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든 말로 바쁜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느끼는 작지만 확실한 즐거움)을 삶 속에서 실천해보았는데,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추억이 많이 생긴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2018년에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 열심히 걷고 또 걸어볼래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면WM 김미숙 고객**

2017년 여름 4남매 키우느라 고생하신 아버지의 팔순 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큰아들의 진행에 따라 손자 손녀들의 따뜻한 박수 속에서 사위들이 부모님을 업고서 입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사위는 휘청거려 손님들의 폭소가 이어지고 행사는 유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우리 가족의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강서WM 김미자 고객**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1년이 더 빨리 훌쩍 가버리는 것 같다.
남편과 만나 살아온 지 26년, 1년을 마무리하는 부부 여행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것은 참 상큼한 한 수였다.
그땐 몰랐는데 사진을 보니 나이보다 젊게 사는 우리 모습에 뿌듯하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늘 지금만큼만 서로 사랑하고, 항상 곁에서 친구 같은 남편과 아내로 살아갔으면 한다. "당신! 살아보니 더 괜찮더라"라고 오늘도 나 자신에게 외쳐본다.

**천안아산WM 김현정 고객**

첫딸에 비해 묵묵히 착하기만 한 둘째 딸에게 어느 날 엄마로서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기 중 고등학생인 딸과 함께 무작정 떠난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호수입니다. 너무나 맑은 호수에 딸아이와 함께 발을 담그고 신나게 물장구치며 웃던 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아~ 내게 와줘서, 무뚝뚝한 엄마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올 한 해도 감사하고 2018년에도 건강하자.

오블리제 클럽 2018년 새해맞이 고객 덕담 메시지

무술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무술년 새해는
개띠인 저에게도 왠지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기운이 널리 퍼져
모두 행복한 한 해
보내시면 좋겠어요.

상암WM 고명희 고객

사랑 가득, 행복
충만한 2018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센텀시티WM 김재숙 고객

희망의 새해
알찬 수익 일궈
미래에셋대우 가족과
고객 모두 행복하길
기원해요.

사하WM 김순균 고객

2018년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구리WM 박순이 고객

무술년 새해에도
새로운 꿈의 실현과
가정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용산WM 이영주 고객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보상받는 2018년
되시기 바랍니다.

방배WM 공민중 고객

2018년에는
건강, 행운, 즐거움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올림픽WM 김영희 고객

2018년 무술년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세요.

장한평WM 이성규 고객

미래에셋대우와의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더욱
번창하세요.

강서중앙WM 박정숙 고객

하루가 지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오고,
한 해가 지면 또
새해가 떠오릅니다.
새롭게 2018년을
시작합니다.
Happy New Year!

남천동WM 박기범 고객

올 한 해도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술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파이팅!

장한평WM 최선호 고객

2018년! 잊고 있었던
꿈을 향해 다시 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리WM 장재상 고객

2018년에는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고
미래에셋대우도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마포WM 지혜영 고객

2017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2018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되고 보람된 한 해
되세요.

IWC3WM 이재경 고객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융성하시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밸리WM 한동구 고객

새해에도 재테크 여왕이 될 수 있도록
미래에셋대우와 함께할게요!

수원중앙WM 임은정 고객

큰딸, 원하던 간호일
재미있게 할 수
있기를.... 아들과
아내는 다이어트
성공하고, 저는
미래에셋과 함께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중동WM 최호연 고객

2018년 무술년은 새로운 희망,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실WM 정광진 고객

무술년 한 해
평안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청주WM 전홍구 고객

‘미’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보내고
‘래’ 내일을 향해
‘에’ 애정을 담아서
‘셋’ 새해는 새 마음으로 맞이하길.

대구WM 최선희 고객



고객님의 소중한 작품을 오블리제 클럽으로 보내주세요

EVENT 자유 작품 공모전

새해 희망을 담은 모든 자유 작품

그림, 사진, 에세이 등 자유 작품을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세요.
작품을 보내주신 고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응모 대상** 미래에셋대우 고객이라면 누구나
- 응모 기간** 2018년 1월 31일(수)~2월 21일(수)
- 응모 주제** 새해 희망을 담은 모든 자유 작품(그림, 사진, 시, 에세이 등 자유 작품)
* 1인 1작품 응모를 원칙으로 하며, 다작 응모 시 1작품만 임의 선정해 심사합니다.
- 당선 선물** - 우수작 :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10명)
- 가작 : 광주요 머그컵 세트(10명)
- 응모 방법** ① 응모 사연과 작품 파일을 obligeclub@miraeasset.com으로 이메일 발송
② 이메일 발송 시 고객명, 연락처, 당사 거래 계좌번호 기재 필수!
* 상기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당선 발표** 2018년 2월 28일(수) 예정
* 당선 고객에 한해 이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당선작 및 고객명은 다음 호 <오블리제 클럽>에 게재합니다.
- 문의 사항**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1588-6800)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10명)



광주요 머그컵 세트(10명)

오블리제 클럽 매거진을 보고 전시회 관람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전시회 관람 신청 사연을 간단히 문자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20분께 <Hi, POP-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展> 관람 기회를 드립니다.



전시회 <Hi, POP-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展>

관람 기간 2018년 3월 1일(목)~3월 31일(토)

관람 장소 M컨템포러리(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전시 작가 로버트 라우션버그, 로이 릭텐스타인, 앤디 워홀, 키스 해링, 로버트 인디애나

전시 소개 미국 팝아트의 거장 5명의 작품 160여 점을 총망라한 전시다. 예술의 대중화를 외친 이들이 창시한 새로운 예술, 팝아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전시 문의 1544-1555

- 응모 대상** 미래에셋대우 고객이라면 누구나
- 응모 기간** 2018년 1월 31일(수)~2월 18일(일)
- 당첨 선물** 전시회 <Hi, POP-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展>(20명, 1인 2매)
* 만 7세 이상 관람가
- 응모 방법** ① 휴대폰 메시지 입력창에
'신청 고객명'과 '간단한 응모 사연' 입력(30자 이내)
* 띄어쓰기 포함 40자 초과 시 시스템상 응모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② 013-3366-2244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면 응모 완료!
* 별도의 정보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관람권의 환불은 불가하므로
상기 관람 일시에 참석 가능하신 분만 응모 바랍니다.
- 당첨 발표** 2018년 2월 23일(금) 예정
* 당첨 고객에 한해 문자메시지(MMS)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문의 사항**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1588-6800)



유의 사항

● 전시회 관람권 이벤트 응모 시 전송된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가 당사의 고객 정보와 상이할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발표 일 및 경품은 당사 또는 제작사 측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 동등한 경품 등으로 대체·제공합니다. ● 고객님의 개인 정보는 본 이벤트의 응모, 경품 제공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동 목적 이행 완료 시까지 이용·보관됩니다. ● 상기 관람 일시 및 전시 작가는 미술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미래에셋대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1588-6800)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자산 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JAN-FEB 2018

GLOBAL ASSET ALLOCATION MODEL PORTFOLIOS

올해에도 주식 비중은 충분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글로벌 매크로 상황상 딱히 걱정거리가 없다.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너무 오래(IT 버블이 120개월 이후 최장인 103개월째)됐다고 하지만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이 과거 재고 사이클 중심의 경기 판단 방식을 간간부터 흔들고 있다.

2018년 자산 배분의 화두



글 _ 이재훈 미래에셋대우 고객글로벌투자전략팀장
jaehun.lee@miraeasset.com



2017년 정리 : 골디락스와 혁신 기업의 컬래버

2014년 중반부터 2016년 중반까지 가장 중요한 가격 변화는 셰일 혁명이 가져온 유가 급락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매크로는 저성장 속에 디플레이션 고통을 겪었다. 신흥국 시장이 매우 고통스럽던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미국에 이어 유럽·
이머징 등 글로벌 경기가 동반 회복에 진입했다. 국제
유가 역시 20달러대를 바닥으로 점진적으로 오르기 시
작했다. 그러면서도 인플레이까지는 발생하지 않는 ‘골디
락스’ 양상을 보였다. 즉, 주식 등 위험 자산에는 최적의
환경이자, 채권시장 역시 근근이 버티는 환경이 전개된
것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본격 개화하면서 혁신
기업까지 가세하며 2017년 중 주식·채권·대체 투자 등
거의 모든 자산군이 지역·종류를 불문하고 상당히 많
이 올랐다.

2018년, 주식 비중 높게 가져가야, 기대 수익은 다소 낮아져

경기 고점 논란 문제는 트럼프 재정 정책(감세, 인프라 투자 등)이 경기 사이클을 더 연장시켜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더딜 것으로 본다. 금리정책에 인플레이션을 중요시하는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중국 또한 구경제·수출 중심의 과잉을 줄이고 신경제·가계 중심으로 무난하게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해온 반면 향후 추가적인 모멘텀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머징 주가가 2016~2017년 합해서 50% 가까이 올랐고 G2(미국·중국) 중심의 IT 섹터는 지난해에만 40% 넘게 올라 차익 실현 심리가 잠복해 있다. 이미 작년 4분기 시장 내부적으로는 IT 섹터에서 일부 이익 실현이 포착되기도 했다. 2017년 전 세계 이익 증가율이 +34%로 높았는데, 기저 효과 때문에 2018년은 그만큼은 못될 것으로 본다.

올해는 섹터 간 건전한 로테이션 경험할 것

주식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된다 해도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글로벌 경기가 광범위하게 회복되고 있어 그간의 IT 섹터·성장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보다 넓은 섹터·스타일로 확장되는 '건전한 로테이션'으로 양상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경기가 무르익고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금융·소비재·소재·산업재 등 소위 Cyclical(경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주식)의 성과가 좋았다. 연장선에서, 미국보다 경기 탄력이 좋았음에도 IT 비중이 작고 금융·소비재·산업재 비중이 높아 지난해 부각되지 못한 유럽 시장에 대해 기회를 노려볼 필요가 있고, 중앙은행의 긴축 타이밍이 가장 늦은 일본 역시 관심권에 들어야 할 것이다.

채권은 올해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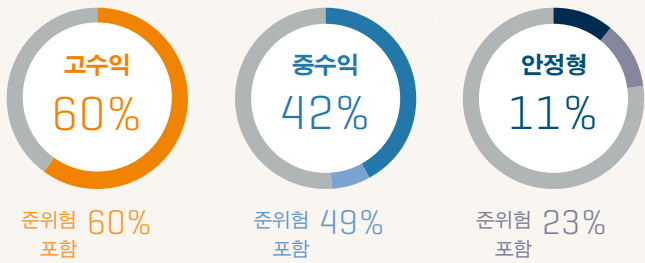
GDP 갭이 (+)로 돌아서는 등 순환적 인플레이 압력이 점점
중중이나, 고령화·산업혁명 등의 구조적 안정 요인이
상당히 강력해서 결국 물가는 올라도 점진적·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급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는 않
을 걸로 본다면, 자생적 인플레이와 통화 긴축이 채권시
장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다
만 트럼프 정책 여파가 신경 쓰인다. 지금 같은 경기 사
이를 호조 및 완전고용 상태에서 이러한 재정 확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자칫 ‘불난 집에 기름 붓기’가 된다
면 2019년으로 다가가면서 경기·주식 과열로 인한 인
플레이 및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현재 자산 배
분 포트폴리오에 국내 채권을 Overweight(비중 확대)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원/달러 하락세가 계
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닥을 예단키는 어려우나, 1분
기를 지나면서 무역·자본수지 모두 모멘텀이 점차 둔
화될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바닥 조짐이 보이면 환·
금리 양쪽에서 캐리 수익을 높이는 해외 채권으로 다시
늘려가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

글로벌 자산 배분 MP / 연금 자산배분 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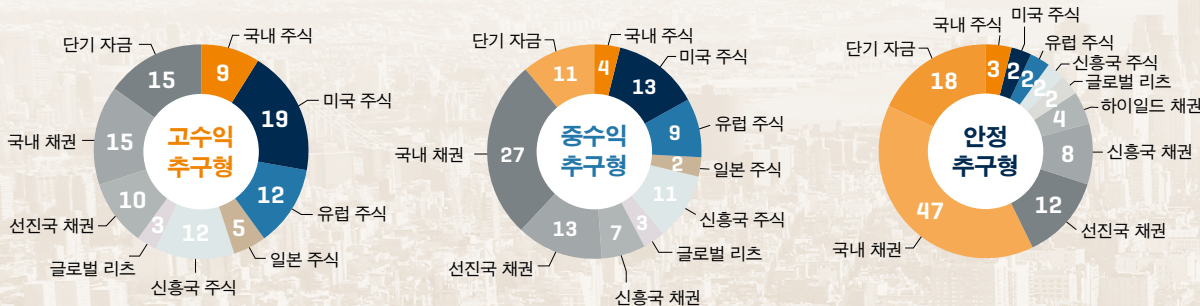
투자 매력도가 낮아진 자산군(신흥국 채권, 하이일드 채권) 대비
선진국 주식 및 안정형 채권을 선호하는 자산 배분안

글로벌 자산 배분 MP

위험 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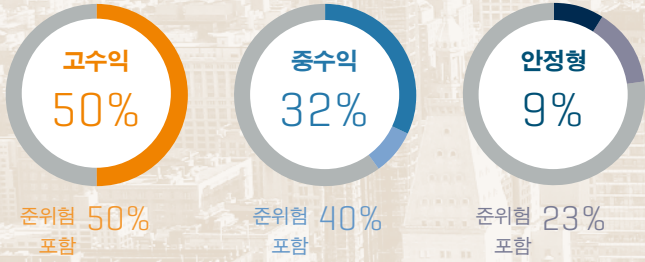


※ 주식 자산 : 주식, 원자재, 글로벌 리츠 / 준 위험 자산 : 하이일드 채권, 신흥국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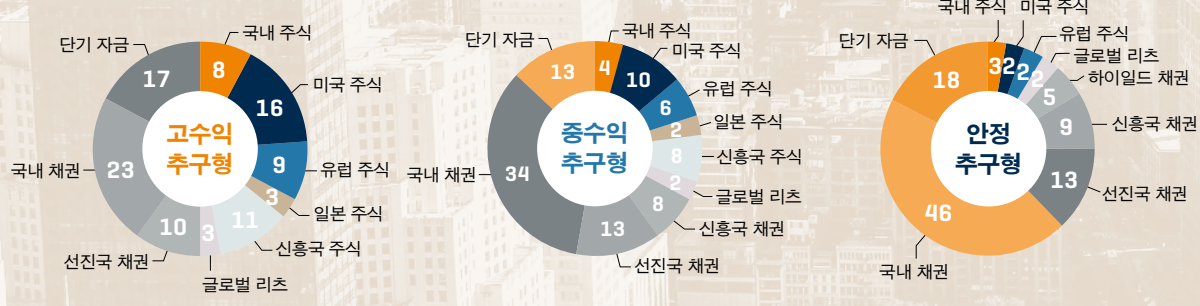


연금 자산 배분 MP

위험 자산 비중



※ 주식 자산 : 주식, 원자재, 글로벌 리츠 / 준 위험 자산 : 하이일드 채권, 신흥국 채권



핵심 추천 상품 / 연금 추천 상품

글로벌 성장 기조 유지
주식형 상품 유망

- 1 선진국
- 2 신흥국
- 3 채권
- 4 연금

2018년에는 경기회복세가 신흥국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식을 여전히 유망 투자처로 생각. 현재와 비슷하게 완전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과 일부 채권 섹터의 고평가 부담을 고려하여 채권형 상품 투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피델리티글로벌금융주펀드**를 추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있는 영국을 제외한 유로존 지역에 투자하면서 경기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슈로더유로펀드**를 추천.

전체 이머징 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하되, 아시아 투자 비중이 높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펀드**를 신규 추천. 중국 현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문하는 **Best Selection 차이나 자문형 랩어카운트 (AI차이나)**를 추천. 국내 증시의 완만한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 중에서 배당성향이 우수한 종목에 투자하는 **KB액티브배당펀드**를 신규 추천.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펀드의 경우 금리와 환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높은 쿠폰 이자를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중기적으로 추천을 유지.

안정적 인컴 수익이나 자산 배분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안정 수익 추구형 상품과 장기 성장성이 높아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을 나누어 추천. 그 중에서도 특히 **미래에셋자산배분/전략배분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 비중을 조정해주기 때문에 연금계좌 내에서 유리한 구조의 상품으로 보고 있음.

핵심 추천상품

자산군	상품명
해외 주식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펀드(주식)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펀드(주식) 신규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펀드(주식)
	슈로더유로펀드(주식)
	피델리티글로벌금융주펀드(주식)
	Best Selection 차이나 자문형 랩어카운트(AI차이나)
국내 주식	KB액티브배당펀드(주식) 신규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펀드(주식)
해외 채권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펀드(채권)

연금 추천상품

자산군	상품명
안정 수익 추구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펀드(주식혼합)
	미래에셋자산배분/전략배분TDF시리즈
	블랙록글로벌자산배분펀드(주식혼합)
추가 수익 추구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펀드(주식)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펀드(주식)

신규 IN	제외 OUT
국내 주식 KB액티브 배당펀드(주식) 해외 주식 미래에셋이머징 마켓리더펀드 (주식)	해외 주식 슈로더이머징 위너스펀드 (주식혼합)

상품 개요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5(6)영업일 기준으로 제9(10)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종류A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총보수** - 종류A : 연 1.05%(운용 연 0.40%, 판매 연 0.60%,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2%)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0.95%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다양한 해외주식형 펀드(ETF)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며, 시장 환경에 따라 적극적 배분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 추구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9(10)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00%(운용 연 0.30%, 판매 연 0.65%,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2%)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2.07%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이머징 마켓을 대상으로 국가는 분산하되 주요 투자 테마에는 집중 투자하여 장기적인 초과수익 추구

미래에셋G20이노베이터증권투자신탁(주식)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58%(운용 연 0.8%, 판매 연 0.7%, 신탁 연 0.05%, 사무수탁 연 0.03%)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글로벌 성장의 수혜가 주요 글로벌 혁신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글로벌 혁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동 펀드의 투자 매력 높음

슈로더유로증권자투자신탁A(주식-재간접형)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9(10)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2%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2.01%(운용 연 0.85%, 판매 연 1.10%, 신탁 연 0.04%, 사무수탁 연 0.02%)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펀더멘털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유로존 지역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수익 추구

피델리티글로벌금융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

• **투자위험등급** : 3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3(4)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2%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16%(운용 연 0.10%, 판매 연 1.0%, 신탁 연 0.035%, 사무수탁 연 0.025%)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1.12%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글로벌 금융 관련 다양한 기업에 분산투자하며, 선진국 금리인상에 따라 수혜 기대

미래에셋대우 Best Selection 차이나 자문형 랩어카운트(AI차이나)

• **투자위험등급** : 1등급(초고위험) • **투자일임수수료** : 일반형 연 2.4%(분기 0.6% 후취), 혼합형 연 1.2%(분기 0.3% 후취) + 성과보수(투자자 개별협약에 따름), 성과형 성과보수 투자자 개별협약에 따름 • **위탁매매수수료** : 국내 위탁매매수수료 없음. 단, 해외주식[ETF] 투자시 매매에 따른 거래세 및 해당상품의 약관·설명서에서 정한 보수, 환전수수료 및 현지 Broker fee 등 당사에 귀속되지 않는 세금 및 비용은 고객 별도 부담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중국 본토, 홍콩 리서치 네트워크 갖춘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자문하며 신경제 성장주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수익의 추구

KB액티브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투자위험등급** : 3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2(3)영업일 기준으로 제4(4)영업일에 대금지급[()15시 30분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41%(운용 연 0.715%, 판매 연 0.65%,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15%)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 중에서 배당성향이 우수한 종목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 추구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2(3)영업일 기준으로 제4(4)영업일에 대금지급[()15시 30분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5%(운용 연 0.73%, 판매 연 0.70%, 신탁 연 0.04%, 사무수탁 연 0.03%)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기술·특허 등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꾸준한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 추구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투자위험등급** : 4등급(보통위험) • **환매방법** : 제5(6)영업일 기준으로 제9(10)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 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0.7% 이내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16%(운용 연 0.50%, 판매 연 0.60%, 신탁 연 0.04%, 사무수탁 연 0.02%)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신흥국 현지 통화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높은 이자소득과 총수익 달성 추구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투자위험등급** : 4등급(중위험) • **환매방법** : 제2(3)영업일 기준으로 제4(4)영업일에 대금지급[()15시 30분 경과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 C : 없음 • **환매수수료** - 종류C : 없음 • **총보수** - 종류C : 연 1.38%(운용 연 0.43%, 판매 연 0.90%,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2%) • **상품 특징 및 추천근거** : 국내 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면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 배당과 옵션 프리미엄 수취를 통한 장기적인 인컴 수익 추구

블랙록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H)

• **투자위험등급** : 4등급(보통위험)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375%(운용 연 0.55%, 판매 연 0.75%, 신탁 연 0.05%, 사무수탁 연 0.025%), 종류C-P : 연 1.225%(운용 연 0.55%, 판매 연 0.6%, 신탁 연 0.05%, 사무수탁 연 0.025%)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0.45%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근거** : 글로벌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국가 800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종류C-P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1.70%(운용 연 0.90%, 판매 연 0.72%, 신탁 연 0.05%, 사무수탁 연 0.03%), 종류C-P : 연 1.70%(운용 연 0.90%, 판매 연 0.72%, 신탁 연 0.05%, 사무수탁 연 0.03%) • **상품 특징 및 추천근거** : 경제 펀더멘털 양호하며 중장기 성장 기대감 높은 인도 주식에 투자하며, 그 중에서도 투자매력도 높은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투자위험등급** : 2등급(고위험) • **환매방법** : 제3(4)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A : 1.0% 이내, PRS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A : 연 0.865%(운용 연 0.10%, 판매 연 0.70%, 신탁 연 0.04%, 사무수탁 연 0.025%), 종류PRS: 연 0.765%(운용 연 0.10%, 판매 연 0.60%, 신탁 연 0.04%, 사무수탁 연 0.025%)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1.09%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근거** : 혁신적 기술을 통해 상당한 성장기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초과수익을 추구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C-P(주식혼합-재간접형)

• **투자위험등급** : 2등급 • **환매방법** : 제4(5)영업일 기준으로 제8(9)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C-P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C-P : 연 1.15%(운용 0.30%, 판매 0.80%,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2%) 최초 설정일부터 2020.12.31 기준의 보수이며, 최초 설정일 이후 5년 단위로 신탁보수 등이 인하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참고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0.17%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TDF(Target Date Fund)는 은퇴시점에 따라 위험자산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상품으로서 연금과 같은 장기투자 상품에 적합한 구조임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C-P

• **투자위험등급** : 2등급 • **환매방법** : 제5(6)영업일 기준으로 제9(10)영업일에 대금지급[()17시 경과후] •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C-P : 없음 • **환매수수료** : 없음 • **총보수** - 종류C-P : 연 1.25%(운용 0.40%, 판매 0.80%, 신탁 연 0.03%, 사무수탁 연 0.02%) 최초 설정일부터 2020.12.31 기준의 보수이며, 최초 설정일 이후 5년 단위로 신탁보수 등이 인하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참고 • 총보수 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연 0.24% 추정) 등 추가비용 발생 • **상품 특징 및 추천 근거** : TDF(Target Date Fund)는 은퇴시점에 따라 위험자산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상품으로서 연금과 같은 장기투자 상품에 적합한 구조임

※ TDF시리즈는 은퇴 시점에 따라 2025년~2045년까지 5년 단위로 5개 펀드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펀드의 정보는 각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pliance Note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미래에셋대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모델 포트폴리오는 매월 당사가 자산배분위원회에서 대내외 투자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 추천상품은 시장 적합성과 상품성 등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금융상품을 선정합니다.
 - 선정기준 : 정량평가(기간 수익률, 표준편차 등), 정성평가(집합투자업자 운용능력, 시장상황, 지원현황 등)
 - 선정방법 : 자산 배분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
 - 추천상품은 정량 및 정성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미래에셋 내 투자전문가들이 선정한, 향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품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공통)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래수수료는 다이렉트(은행계휴) 계좌 온라인 0.014% 등입니다. (매체별로 상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펀드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보수, 수수료,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수수료 외에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랩

- 랩카운트 계약 전에 투자대상, 운용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등에 관한 약관, 계약권유문서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랩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 및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입니다.
- 랩카운트는 위탁매매수수료는 없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 등은 고객님의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 가입기간 : 최소 5년 이상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연금수령조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 / 해외채권

- 당사는 당사 발행 외의 채권(또는 CP)에 대해 중도환매 및 원리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중도 매매 시 시장 금리 등에 따라 원금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은 발행사 및 발행국가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 채권은 투자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문은 청약의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예비·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